

# 마음이 상한 자

제임스 김 목사

# 목차

서론	5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7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9
고통의 목적	14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17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21
고통의 축복	24
고난의 유익 (1)	28
고난의 유익 (2)	33
고난 속에서의 감사	37
두려운 상황	40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	48
왜 우리는 궁핍한 것입니까?	52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56
“그 환난 때에”	61
“나의 연약함”	65
탈진	69
낙심 될 때	73
낙망과 불안	76
사람에게 무거운 것	78
이 세상의 무거운 짐	82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85
참담한 마음	89
잠시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할 때	96
내 마음이 흔들릴 때	99
“내 마음이 놀랄 때에”	103
“내 속에 놀리는 일”	108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110
내 영혼이 억울할 때	115
“갈혀 있을 때에”	120
갈힌바 되었을 때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	125
‘주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127
너무나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안심을 할 수 있습니까?	130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134
“괴로울 때”	141
괴로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	145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울 때	148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 졌을 때	154
조울증에 걸린 엘리야 선지자?	157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164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170
“위로자가 없도다”	174
‘주님,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	180
위로 받기를 거부하는 애통	183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185
눈물을 흘리며 원망으로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188
내 두려움을 아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	19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197
낙심치 말라!	202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205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210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217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220
체휼하는 위로자	223
말로 위로하라!	227
위기는 기회입니다!	230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	234
환난은 기회입니다!	241
믿음의 시련	246
재앙 후에 주시는 은혜	248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252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	258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61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265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267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272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274
<b>결론</b>	278

# 서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에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복음성가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세상에 마음이 상할 일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큰 고통 속에서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무거움과 짓눌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감당하기 벅찬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도 갑작스럽게 생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염려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함 속에서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낙망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동서남북 갇힌바 된 느낌 속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틸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더 깊은 영적 침체에 걸려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애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자유케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 전 밤에 생각하다가 지난날에 낸 “마음이 정결한 자”(40일 묵상집)와 “마음의 지혜로운 자”(전도서 묵상집)란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후 생각난 책 제목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든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제목이 생각났을 때 저는 제가 여태까지 묵상한 말씀들을 살살이 뒤져서 그 주제에 적합한 말씀 묵상들을 다 골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제목 아래 여러 말씀 묵상들을 한 곳에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혹시나 주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자” 말씀 묵상집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것들을 한곳에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자” 말씀 묵상집을 도구로 사용해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승리장로교회 목양실에서)

#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시편 34편 18-19절).**

마음에 깊은 상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위로를 해 주어도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시 77:2)의 깊은 상처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기 주영이가 죽은 후 1주일 동안 아무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은 1주일 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아파트에 돌아와 아내에게 사진을 다 치워달라고 하였을 때 제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도록 앨범에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의 죽음은 비수처럼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아빠와 엄마가 똑같이 상처를 입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흘리는 눈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시편기자처럼 고난이 많습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고난 자체라기보다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구원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힘들어 하고 또한 당혹스러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사 구원해 주시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을 나에게 임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출 3:7) 모세에게 가라고 명하셔서 보내셨는데 구원해 줄 줄 알았던 모세가 오히려 바로로 하여금 더 큰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게 하므로

더 큰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처럼(출 5장)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깊은 구렁텅이에 우리로 하여금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할 때로 상해서 철저히 부서진 가운데 소망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10 미터 구렁텅이가 아닌 100 미터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힘을 잃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깊은 구렁텅이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며 회개하게 되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감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깊은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므로 인간의 영광이 들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나므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미터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하고 100미터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깊고 깊은 100미터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을 때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10미터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을 때 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고난과 상처를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상처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우리 자신이 큰 고난과 상처 속에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가까이 오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큰 고난과 상처와 슬픔 속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시사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 [시편 34편 15-22절]

과연 고난이란 가벼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밑에 글을 읽으면서 고난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는지 그 해답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의 깊이는 의인의 고난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이 인간의 느낌이요, 직관이요, 신념이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멸망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이 악한데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죄 값을 대신 치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인들의 고난의 의미다. 의인의 고난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의인이 그런 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의인은 세상을 살린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이 세상을 살린다.”

우리의 고난이 가벼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죄 값을 대신 치를 때에 우리의 고난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난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이고 둘째 고난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빌1:29). 이러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는 자에게는 고난이란 가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고난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은혜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5-22절을 보면 우리는 이 고난의 은혜를 누리는 시편 기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늘 본문 시편 34편 19절 상반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는 제목 아래 의인이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3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인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고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였습니다. 왜 다윗은 마음이 상했었으며 혹은 중심에 통회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난 받는 중에 “미친 체”한 것이 죄인지, 즉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죄인지 아니면 고난 중에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범한 것인지(13-14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인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였다는 사실입니다(18절). 다윗은 많은 고난 중에 중심이 통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마음은 좀 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 부서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강퍽하고 단단한 마음이 좀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이던지 아니면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이던지 우리의 마음은 좀 상하고 부서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숨기고 자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에 찢림과 마음에 부서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저자 이사야 선지자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contrite in spirit)과 ‘겸손한 자의 영’(lowly in spirit)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겸손한 자는 통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 즉 마음이 상한 자 또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사 그 마음을 소성케 하십니다(사57:15). 우리 주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소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상심한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시147:3).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는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통회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가 그를  
감싸 주리라 사랑의 주님은 교만을 물리치고 애통하는 자를 찾나니  
누가 주님을 위해 누가 이웃을 위해 그 고난의 잔을 나눌 건가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 웃고 있나요 주님은 잃은 자 위해 울고 있는데”

(복음성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둘째로, 의인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5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데도다 …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출애굽기 3장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보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 34편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가 곤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서 기도에 대하여 4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4, 6, 15, 17절) 그는 많은 고난 가운데 간절한 많은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기도 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59:1-2).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우리의 죄를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의인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의인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7절, 19절, 22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여 건져 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며 또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4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비록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즉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마음이 상한 자를 구하시되 우리를 구함에 있어서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악인을 멸망시키시므로 의인을 구원하십니다(16절).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악자의 자취를 이 세상에서 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들의 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21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20절). 우리를 환난 중에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을 누립니다. 그 누리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의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대신 걸머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셨던 예수님을 멀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셨던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막15:34)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상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므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시34:10; 엡1: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시34:1-3).

## 고통의 목적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12장 8절).**

‘영혼의 청교도 의사’(a Puritan doctor of soul)인 Thomas Case 목사님이 쓴 “Suffer”(고난)이란 책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고통의 상황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21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1가지 교훈들을 읽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매를 맞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가르침(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운 생각이 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의아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범죄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하여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8절의 문맥을 보면 유다 왕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 큰 고통이란 바로 멸망의 위기였습니다(12절). 그 큰 고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붙인바 된 것입니다(5절). 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5절).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1절) 그들은 하나님께 버린바 된 것입니다(5절). 그러면 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유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 졌기 때문입니다(1절).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원인은(2절)은 바로 교만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시사(12절)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2-4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려운 생각이란 바로 “익숙함”입니다. 마치 르호보암과 유다 나라가 견고함과 강한 세력에 익숙해져가므로 결국에 가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것처럼 제 자신과 저의 가정 및 섬기는 영의 가정 교회가 평안함이나 풍족함이나 견고함이 익숙해져 갈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씨앗이 제 마음에 뿌려져 쓴 뿌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에 깊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마음의 그 교만의 씨앗이 나무가 되어 쓴 열매를 맺어 결국에 가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분명히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제 교만함과 제가 그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죄를 범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셔서 저와 제 가정과 제가 섬기는 승리공동체를 치시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고 있습니다. 만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면 제가 고통 중에 거하게 될 텐데,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가 이렇게 평안함과 풍부함과 견고함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르호보암과 유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방백들이(5절) 스스로 경비한 것처럼(6절) 우리도 스스로 경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6절)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 남편들(아버지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범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매를 드셔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노를 돌이키사 유다 나라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12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경비한 르호보암과 유다 나라에 모든 진노를 다 쏟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7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강 구원하셨습니다(7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totally) 멸망시키시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완전히(completely)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신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완전한 구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고통에서 완전히 건져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더 좋아하는 세상(혹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길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경비하는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대강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그 차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과 성공과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교회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함과 풍족함과 견고함과 강한 세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세상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란 막대기를 우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회개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마태복음 14장 24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시92:5; 전3:11).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욘5:9; 시145:3). 왜 하나님께서 욘에게 고난을 겪게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는지(욘1:4)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누가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3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비록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욘에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를 단련하시사 순금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는 것인가 보다고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욘23:10). 또한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고난에서(욘1:4) 또 다른 고난으로 견지시고 인도하시사(17절)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케 하시고(2장, 특히 2절)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자(3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67, 71). 그는 자기가 그릇 행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는 고난이 자기의 그릇 행한 죄의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 고난당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난 배 안에 있었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물결”(마14:24)]가 일어났고(요6:18) 또한 그 큰 바람과 파도(물결)이 배를 거스르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마14:24). 그 때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막6:48).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나 1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12절)고 요나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13절).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였습니다(13절).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과 싸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시므로(4절) 이방인 사공들로 하여금 배 가운데 있는 물건들만 바다에 던지는 것(5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12절)인데 지금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를 인간적으로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니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점점 더 흉용하게[점점 더 사나운 파도를 그 배에 밀어닥치게(현대인의 성경)] 하셨기 때문입니다(13절). 이 싸움에 누가 이겼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방인 사공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14-15절). 그 결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성난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현대인의 성경)](15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바람과 파도(물결)이 그들이 타고 있던 배를 거스르므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힘겹게 노를 저었다(막6:48)는 것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들과 싸우는(적어도 씨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파도 물결로 하여금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거스르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거스르는 큰 바람과 파도 물결과

싸우고자(씨름하고자) 힘겹게 노를 저어 그래도 십여 리쯤[4.5 킬로미터(현대인의 성경), 3 마일이나 또는 3.5 마일(NIV 성경)]까지 갔었습니다(요6:15). 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데 적어도 밤 사경(새벽 3-6시쯤)까지 그리했습니다(48절, 마14:25). 그러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바람과 파도 물결과 씨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신이 지치는 씨름이었을까요. 야곱도 천사와 밤부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았나요(창32:22-24). 그 씨름하는 모습, 즉 제자들이 거스르는 바람과 싸워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막6:48)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요6:19) 오셨습니다(마14:25).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출애굽기 3장 7-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7절). 그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내려오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8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사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고난당하고 있음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마14:25, 막6:48, 요6:19). 그 때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마14:26).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27절).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28-29절). 그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갔고 그 때 그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29-30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손을 내미시사 베드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31절). 우리가 볼 때에는 결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느 누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신다고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리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한 발자국도 배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배 안이 물 위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는 것보다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우리는 확고히 믿고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고 배에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가 예수님이 계시는 물 위보다 더 안전한가?’ 중요한 것은 배나 물 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가 아닌가?’(참고: 출33:15).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마14:29). 그런데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건져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31절).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32절, 막6:51).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걸어서 배까지 와서 배에 올랐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 혼자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을 때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과 물 위로 걸어서 배까지 와서 배에 함께 오를 때까지는 그는 바람을 보았거나 무서워했다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 때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막6:51).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33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바람과 물결(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고난을 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신 일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왜?”(Why?)라는 질문(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는가?)이나 “어떻게?”(How?)라는 질문(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What is God’s will?)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Who is my God?)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고난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므로(호4:1, 6; 6:4)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빌3:8). 고난을 통해서라도 가장 고상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역대하 15장  
6절).**

“개혁”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과연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평생 청교도 신앙사를 통해 청교도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번역해 이 땅에 소개해 오신 개혁신학 알린 번역가 서문강 목사님은 개혁주의자란, 남 아닌 자기 자신을 가정 먼저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인터넷).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때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성령)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여(1절) 아사랴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던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에게(2절) 선포한 말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한 부분의 내용 중에 6절 하반절을 보면 선지자 아사랴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어젯밤 역대하 15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이 6절 후반절 말씀의 부분에서 제 시선이 멈춰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유다 백성을 요란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베냐민 백성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롭게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절 말씀의 문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3절 말씀이 그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가 오래 되었으나”(3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롭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참 신도 없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이나 참 신도 없이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오랫동안이나 살아왔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매우 중요했었을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도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을까요? 한 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율법은 매우 중요했을 텐데 어찌 오랫동안 하나님과 제사장과 율법 없이 지내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아사 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와 베냐민 땅은 물론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서 그가 빼앗은 모든 성에서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아사 왕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은 어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자리까지 패하고 그녀의 우상을 찍고 빵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16절).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온 땅의 주인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5절). 그 환난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4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 신도 없고 백성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롭게 하시므로 결국 그 환난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찾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하여 아사왕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낭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케 하셨습니다(8절).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까지 맹세를 하게 만드셨습니다(12-13절). 결국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15절). 이리하여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개혁자들에게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학교 선생님이 없이 하나님 보다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과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참 목자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에 우리를 깨달아야 합니다[(렘10:18) “...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 깨달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더욱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고(28:22) 오히려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33:12,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12절).

## 고통의 축복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사무엘하 15장 19-20절).**

고통은 그 당시에는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빛으십니다. 빛으시되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부서트리시고 녹이시사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빛으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19-20절을 보면 우리는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하는 말을 봅니다. 이 다윗의 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잇대란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다윗 왕이 한 말이 뭐 그리 중요하나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태껏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새벽기도회 때마다 다윗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오늘 새벽기도회 때에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나눕니다. 그 나눔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빛으시되 한 충성된 자기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의 고통입니다: (1) 다윗의 첫 번째 고통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가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닐 때 당한 고통들입니다. 왜 다윗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삼상17:45-50)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18:6-7)라고 노래하므로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살인적인 질투로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9절). 그 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추격자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다윗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을 빚으시사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삼상24:10, 26:21, 24) 또한 그를 선대하게 하셨습니다(24:17). (2) 다윗의 두 번째 고통은 다윗이 왕이 된 후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므로(삼하15:12) 자기의 신하들과 도망 다닐 때(14절) 당한 고통들입니다. 왜 다윗 왕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그 원인은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11:2-3) 그 여자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의 남편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12:9). 그 당시 다윗 왕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을 통하여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11:25). 그는 충성된 군인 이었던 우리아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다윗의 행한 일로 인하여(27절)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는 죽고(12:14, 18)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13:1)을 강간하였으며(14절) 그 결과 만 이 년 후에(23절)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29절). 결국 다윗 왕은 왕궁에 있으면서 자기가 범한 간음과 살인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을 강간하며 또 다른 아들이 강간한 그 다윗의 아들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약 이 년 동안 암논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때를 기다렸던 압살롬이 이젠 이 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14:28) 아버지 다윗 왕을 권자에게 물러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계획합니다(15장). 그리고 그는 계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15:6). 더 나아가서 그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참으로 중요한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고문으로 청빙합니다(12절). 아히도벨이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할 만큼 판단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6:23). 그 결과 압살롬의 반역하는 일이 커가므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15:12).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13절).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해 접해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과 빨리 도망합니다(14절). 이 도망하는 가운데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한 것입니다(15:19-20).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다윗 왕이 왕궁에 있었을 때에는 충성된 군인 헛 사람 우리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가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에는 유대인도 아닌 블레셋인 잇대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사울 왕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블레셋 사람 잇대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이 평안히 왕궁에서 거하고 있었을 때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속에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덮으려다가 결국 충성된 군인 우리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징계로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방인 잇대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통의 축복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빚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다윗이 고통을 통하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2)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당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더욱더 귀히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도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뻔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그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형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참고: 1:2)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는 고통 속에서 요나단의 사랑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즉, 다윗은 고통의 광야(15:24)에서 귀한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시63:3)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고통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의 미움으로 광야로 쫓겨나 도망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왕궁에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통의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도 고통을 통하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움 받음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요즘 우리들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의 입술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빌1:8)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지도자들로 인하여 상처 받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깊이, 넓게, 높게 그리고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바라보며 묵상하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랍고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랑의 물댄 동산이 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 고난의 유익 (1)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 119편 71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도 심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뉴스를 인터넷 CNN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34살 난 아버지가 자기의 8살 난 딸과 9살 난 딸의 친구 여자 아이를 칼로 각각 20번과 11번 찔러서 죽인 사건이 시카고에 좀 떨어진 소도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은 이 아버지란 자라 딸의 양 눈까지도 칼로 찔렀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악 중의 악이 아닌가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인간인가?', '과연 아빠의 자격이 있는가?' 자동차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는 일에는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공부하는 것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자기의 딸의 머리를 때려 거실에서 죽도록 이틀을 놓아두었다는 엄마, 결국 예쁜 딸아이의 목까지 잘려서 버려진 사건을 뉴스로 접한 기억이 오늘 이 밤에 또 납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우리 남자들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란 헬라어 의미는 'narrow', 즉 '좁다'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즉, 우리 남편 또는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길을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아픔과 고통 외에 고난의 유익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의 유익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믿음으로 고난의 통로를 인내하면서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65-7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 아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첫째로, 고난의 유익은 나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는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릇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릇행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영적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우왕좌왕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양치기 소년이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로 걷게 하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시사 비뚤어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 "(사53:6). 우리는 미련한 양이래서 제 길 가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 말입니다. 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줍니다.

### **마지막 둘째로, 고난의 유익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6 가지로 어떻게 고난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1)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믿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주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U-turn을 만들게 하므로 주님의 계명만이 참된 길임을 믿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둘 중의 하나의 길을 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좁은 길과 세상의 넓은 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좇던지 아니면 사탄의 또는 세상의 말을 좇던지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을 매일 순간 순간하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주님의 길, 주님의 계명을 믿고 그 계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2) 고난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 즉 선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가운데서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의 상실이란 확신(conviction)이 아니 혼동(confusion)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의 길을 일관성(consistent)있게 걷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영적 분별력의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길, 혼동의 길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무지함과 선한 분별력의 상실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결국에 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적 분별력과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3)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 고난을 통하여 맛보는 주님의 선하심(시34:8) 중 우리에게 제일 큰 유익은 고난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롬8:28)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힘들고 괴롭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밝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교만한 자의 거짓이 우리 귀에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들려서 그 교만한 자의 거짓된 길을 걷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들의 거짓, 너무나 진리같이 생각되어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혼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지금 그 거짓된 길을 분주하게 달리고 있지는 않지요?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거짓된 성공과 명예와 물질 만능주의의 길,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는 그 모든 교만한 자의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참된 길, 주님의 길을 밝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길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의 길의 결국과 다른지? 여러분은 영적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가는 좁은 길의 클라이맥스(climax)가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는 영적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진리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 이러한 진리를 사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심는 과정에서 고난을 통하여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5) 고난은 마음에 살찐 지방을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 요즘 미국에서는 비만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빼겠다고 다이어트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찐 지방"(fat)을 제거하고자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살찐 지방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살찐 지방을 제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육신의 "살찐 지방"이 붙어있으면 얼마나 이런 저런 불편함과 더불어 결국 이런 저런 성인병까지 걸립니까? 그러나 마음의 살찐 지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최악 된 결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최악 된 결과를 가볍게 여기며 누리는 더 큰 죄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란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살찐 지방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최고의 약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마음에 살찐 지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6)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2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신8:3)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많고 다양한 고난들을  
접하면서 결국 그 고난 중에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의 생명 연수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보다 이러한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점점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고난의 유익들을 고난당하는 그 때 그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누릴 줄 아는 고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기자가  
시편 65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심을 경험하며  
그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고난의 유익 (2)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요나 2장 2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4 가지로 반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가리켜 하나님과 춤을 추는 스텝 4 가지라고 말합니다.

(1)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기보다 부인(deny)하려고 하던지 무시(ignore)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누르려고(suppress)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리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2) 하나님과 춤을 추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옥에 가둔 은밀한 상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을 직시하던지 안하던지 할 텐데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할 뿐더러 설상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 원인을 직시하기보다 피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3) 춤의 세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부정하는 데 쏟아 부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어둡고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4) 춤의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의 터널에 들어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통과 상처에 치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2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겪은 고통을 4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요나의 고난은 큰 물고기 뱃속 이였습니다(욘2:1).

다시 말하면, 요나의 첫 번째 고난은 스올의 뱃속 이였습니다(2절). 어두컴컴한 동굴처럼 바다 깊은 곳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도 아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바 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갇힌바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물론 이것은 바로 왕의 생각이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지만). 찬송가 539장 3절 가사처럼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놓였을 때에야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 (2) 요나의 고난은 주님의 파도였습니다(3절).

여기 ‘파도’란 실상 깨뜨리는 자들(breakers)이라는 뜻으로써 곧 자신을 깨뜨려 부수는 파도를 이룹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부서트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만 깨뜨리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1:4) 요나의 강박한 마음도 깨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케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 (3) 요나의 고난은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였습니다.

요나 2장 4절을 보십시오: “...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이러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3).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멀리 떠나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 1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도우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육신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주님의 파도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마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때 어두운 방안에 갇혀 있는 것과 아버님으로부터 몽둥이로 엉덩이나 종아리를 맞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더 괴로운 것처럼 어떠한 징계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제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15:34)란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4) 요나의 고난은 그의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해 갔다는 것입니다.

요나 2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 여기서 ‘피곤하다’란 단어의 뜻은 ‘쇠퇴해가다’입니다. 이 단어는 요나는 극도의 낙심 지경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나에게 임한 고난의 지경은 전적 무능력함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혹은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상황이 3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요나가 극도의 낙심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전적 무기력함과 전적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여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9절)라고 고백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접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특히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대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 71).

## 고난 속에서의 감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요나 2장1, 9절).**

고난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주로 신음하며 상처와 눈물 속에서 허덕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까지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구 탓이라도 해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는 사람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탓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 탓, 상황 탓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잘 탓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더욱더 이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되면 우리는 고난이 자기 자신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이기적인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나 2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1절),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 위에 넘치는 상황에서도(3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속과 그의 영혼이 그의 속에서 피곤해 가는(쇠퇴해져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결이 적어도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요나의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 1장 17절을 보면 바다에 던지 운바 된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므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요나는 오늘 본문 요나 2장 1절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란 문장에 나오는 “기도”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이트팔렐”인데 이 단어는 감사 기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삼상 2장 1절과 삼하 7장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나는 현재 자기가 당면한 고난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사 바다에 던지 운바 된 자기를 삼킨 그 구원의 사건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구원은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요나 3장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요나 2장에서 즉,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는 고난에서 또 다른 (더 큰)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과거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현재 기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현재 당면한 더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만 아니라 그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재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그 다음 날 처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습니다(25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 주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1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요나 선지자도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건져 주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당면할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히13:8). 이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에 아무리 절망처럼 보이는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절망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2장 8-9절을 보십시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란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헤벨”과 “씨”인데 그 의미는 “헤벨”은 “속히 증발하는 호흡”이란 의미요 “씨”는 “텅 빈, 공허”란 의미입니다. 즉, 우상들은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거짓되고 헛된 물질을 숭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버린 후 주일 교회당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주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주일 주님의 전에 감사하므로 올라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상 숭배자들(idol worshipers)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것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God worshipers)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히브리어: “헤세드”) 가운데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므로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하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 부터 도망가고자 했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걱정하신 바 그 뜻을 이루시고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및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고난은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하며 현재 고난 속에서 그 은총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과거의 은총들을 마음에 신실하게 간직하면서 우리는 현재 고난 속에서 기념하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구원의 확신과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두려운 상황

## [시편 27편 1-6절]

혹시 요즘 여러분 중에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지요? 만일 계시다면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걱정, 근심, 불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하면 생각나는 성경구절 중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 .”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 생각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온전한 사랑이 결핍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제 64호)를 보면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크게 4 가지로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2)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고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실제 감정을 부정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3)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행복과 두려움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4)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실패를 준비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합니다(인터넷).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 1-6절을 보면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3 가지로 교훈을 받으면서 그 교훈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어떻게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담대) 할 수가 있었을까요?

(1) 그 첫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빛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2-3절을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로 왔고 또한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5절).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연(담대)했습니다.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안연(담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두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도 되고 근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도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인생의 최악 된 파도와 물결이 몰아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빛”은 어두움을 자동적으로 쫓아버리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대적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들, 특히 전쟁 상황에서의 그의 대적 군대들을 가리켜 “어두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두움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발하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빛 되신 하나님은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구원이신 하나님, 승리 또는 구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곧 다윗의 피난처이시며 다윗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다윗은 어떠한 군대 정황(배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두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 분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 전 인격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연(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 둘째 이유는 다윗은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뒤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담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승리(구원)의 체험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그가 당면한 어두운

상황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실족케 하여 넘어뜨리신 일을 기억하므로 두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안연(담대)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두운 상황 속에서 캄캄하게 보이기만 하는 미래를 생각하기에 앞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들을 생각하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당면한 어두움 상황 속에서 빛 되신 주님에 대한 구원/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3) 그 셋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두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미래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대적 군대가 진을 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3절). 그 이유는 그가 빛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그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란 말씀 또한 신실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접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대하게 견고히 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구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1)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 볼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기 일생 모든 날에 목상했습니다. 은혜 총만한 하나님 계시의 아름다움을 목상하는 자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체험합니다(박윤선).

(2)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했던 이유(4절)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귀어, 그 모든 위험에서 구원 받는 방도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을 때 제가 자주 듣고 목상했던 미국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영어 복음성가는 바로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 (주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기다리네 이곳 주의 처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 알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밤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주영이와 함께 있다가 차를 타고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창공을 바라보며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따라 부르면서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거룩한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 주영이를 품어주시고 숨겨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맡기는 기원의 찬양 이었습니다.

(3)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수를 물리치시므로 자기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소망하였기에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한 가지 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많은 원수 앞에서 몰락되지 않고 도리어 소망 중에 태연자약하게 살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소망 없이는 어두운 환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악 된 물결의 파도가 더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543장 2절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

###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5절).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장래의 소원 성취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서원했습니다(6절, 박윤선). 이 행동은 승리자로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입니다(박윤선). 어떻게 이 행동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대적과 자신의 원수 된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과거에 자기로 하여금 승리케(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가 당면한 원수들이 대적하는 어두운 상황에서와 또한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능히 건시지고 승리케 하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은 변치 않았는데 다윗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두려움 되신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두려운 상황에 지배를 받기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보다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당면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 찬양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사41:10).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또한 앞으로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오히려 안연(담대)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창세기 32장 7절 상반절과 11절).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몰려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7절 상반절과 11절에 나오는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을 때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낸 야곱은(3절) 그 사자들이 돌아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6절)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습니다(7절). 그는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와 생사가 달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숨 막힐 정도로 답답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3절)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20년 전 형 에서를 숙여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가로채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바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었지만 그 곳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사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10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때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 전 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와 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병실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울고 계시는 할머니에게 왜 우시는지 여쭙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할머니가 죽음이 두려워서 우시는가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할머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흘리셨던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과연 저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님과 할머니 외에도 저희 교회 돌아가신 할아버님들과 할머니들이나 지금도 살아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이 겪었던 일제시대와 6.25. 전쟁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살려주시고 여기 미국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분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어떤 분들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 드리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억들이 저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신과 자신의 처자들을 다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11절).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곧, 야곱은 심히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두려운 느낌(Feeling)에 이끌림 받기를 거부하고 사실(Fact)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Faith)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을 때 먼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10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 먼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운 느낌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제 안에 있는 극심한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합니다. 결코 저는 제 인생에 몰려오는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 마음 판에 적어주신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여(창32:11)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약속인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과 교회적으로 주신 약속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하므로 말미암아 저는 몰려오는 인생의 파도가운데서도 제 마음은 바다 깊은 속의 잔잔한 물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평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기 식구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인도하여 압박 나무를 건너게 한 후 홀로 남아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22-24절). 그리고 그는 날이 새려할 때 그 천사가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고 했을 때 그 천사가 자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 받기 전에는 기도의 손을 내려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 아내와 자녀들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두려워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맛볼까봐 두려워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 두려워하고 싶고 제 마음이 더욱더 답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극심한 두려움과 마음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치 모세와 바울처럼 저는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또는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기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길 간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 왜 우리는 궁핍한 것입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사무엘하 21장 1절).**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궁핍(financial need)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궁핍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궁핍함(mental and emotion need)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여 이런 저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궁핍함 보다 제일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영적으로 궁핍함(spiritual need)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허함 가운데 이런 저런 영성(spirituality)을 추구하므로 영적 혼동의 상태(a state of spiritual illusion)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기근”(famine)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는 종종 “기근” 또는 “가뭄”이란 단어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을 보면 야곱의 시대 때 풍족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창43:1).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거하던 곳에 크게 흉년이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14절). 왜 이러한 기근이 임하는 것일까요?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련의 기근(famine of training)과 (2) 징계의 기근(famine of correction).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기근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징계의 기근이었겠지만 그 기근의 주된 목적은 요셉을 단련하는 기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족 식구들이 경험하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진보 및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한 기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기근은 탕자로 하여금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기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은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종류의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오는 기근은 바로 징계의 기근(famine of correction)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1절).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를 꾀하여(2절) 실제로 그들을 학살하였고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한 고로(5절) 다윗의 시대에 삼년간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1절). 그러므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와 기업의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3절)고 묻습니다. 그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모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 달라고 요구합니다(5-6절). 그러면 자기들이 그 사울의 일곱 자손을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말합니다(6절). 다윗은 이 요구를 듣고 사울의 자손 일곱을 그들에게 내어주되(8-9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껴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7절).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7절). 결국 기브아 사람들은 다윗이 넘겨준 사울 자손 일곱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함께 죽고(9절) 사울의 아내인 아야의 딸 리스바는 붉은 베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퍼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10절). 그녀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11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여(12절) 올라와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목매어 달려 죽임을 당한 사울의 자손 일곱의 뼈를 거두어(13절) 다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였습니다(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14절).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궁핍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한 감정적으로나 경제적 등으로 오는 궁핍함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괴한 죄입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기근은 사울과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이 맺은 언약을(2절)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멸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하는 삶 속에 궁핍함도 우리 선대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었었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그의 집에서 학살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다윗의 시대 때 기근을 주시므로 다윗을 통하여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시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신실하게 내려주시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신실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와 맺은 언약(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이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힘써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실하게 힘써 지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기근과 궁핍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나 서약을 사울 왕처럼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2절).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빌3:6) 사울 왕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열심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열심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면서 열심을 내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열심히 섬기니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깨기까지 하면서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된 열심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였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방백들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께 여쭙보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에 사울 왕 또한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한담시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항상 죄를 범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한다는 자기 보기에 좋은 이유(변명)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저런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와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도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약속을 한 비신자들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원한도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왜 우리에게 궁핍함이 임했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보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다윗처럼 다른 이와 맺은 언약(약속)을 깨지 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이사야 7장 9절 하반절).**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평안하다 싶더니 여기저기서 일들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도 감당하기가 역부족인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 힘들고 지칩니다. 이젠 더 이상 일들을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심신이 다 지쳤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서 낙심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도 흘립니다. 복음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는 종종 사탄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공격할 때 연합전선을 피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성경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우리들은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느4:7)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연합은 성경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핍박함에 있어서 원수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 전선을 핀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공격하여 교회가 재건되는 것을 막고자 악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막고자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몰려오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지쳐 낙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혼선과 혼동을 주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놓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흔들려 놓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 말씀의 배경 이야기를 보면 남쪽 유다를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1절). 그러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람(시리아)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그 침공 위협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습니다(2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첫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 떠는 유다 왕에게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하며 낙심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그 지도자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조심하여 침묵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과 낙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므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두려움과 낙심 속에 거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한 가정과 한 조직에 지도자라면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가정의 가장인 우리가 두려워 떨며 낙심하면 우리의 부인과 자녀들은 어떨겠습니까. 지도자는 두려워도, 낙심이 되도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 시1편, 렘17장).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저는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낙심하기보다 소망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전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7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결코 이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계획대로 결코 “그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7절). 여기서 “그 일”이란 두 왕이 동맹을 맺어서 악한 꾀로 꾸민 유다 왕 아하스를 대적하여 그를 해할 음모입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은 함께 올라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웠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였습니다(5-7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시33:11).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욘42:2). 비록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오직 여호와와 뜻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잠16:9, 19:21).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시행하십니다(사46:11).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로(행26:32) 사슬에 매인 채 이탈리아 로마로 배타고 행선하던 중(27:1) 큰 풍랑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파선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 중 딱 한 사람 바울 외에 나머지 275명은 모두 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것을 보고 삶을 포기합니다. 그 때 그 275명은 다 구원의 여망이 없이 삶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밀려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는 가운데 짐들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자기들의 손으로 다 내 버리면서 까지 살아보려고 심히 애를 썼지만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큰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23-24절). 그러므로 바울은 나머지 275명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25절). 저 또한 바울과 같은 믿음과 확신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1987년 대학부 수련회 때 저에게 주신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과 2003년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 수련회 때 저에게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들로 하여금 저를 위로해주시고 힘 주시사 다시금 오뚝이처럼 일으켜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현대인의 성경) “만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의 국한될 뿐이며 아람 왕 르신도 그 영토를 더 이상 넓히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도 65년 안에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굳게 믿고 굳게 서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하스 왕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굳게 믿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우리들은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공격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놓고 요동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롬4:20).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잠4:1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합니다(히10:23).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히3:14).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대하20:20, 살전3:8).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견뎌보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지쳐 낙망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말을 그대로 믿어라’, ‘너는 굳게 서 있어라’(사7:4, 7, 9).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그 환난 때에”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역대하 15장 4절).**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잠24:10).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시120:1). 우리는 환난 중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롬12:12).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시120:1).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4절을 보면 성경은 “그 환난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환난 때에”란 “그 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던 때였습니다(5-6절).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했습니다(6절). 왜 그들은 환난을 당한 것입니까? 그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3절). 아사 왕이 선지자 오렛의 아들 이사랴(1절)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8절) 종교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게 했습니다(14:2-5). 어느 정도로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15:13) 하나님께 맹세케 했습니다(14절). 그들이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15절). 결국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14:5).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습니다(6절). 즉, 아사 왕이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7절). 이렇게 아사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1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아사 왕과 그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시련이란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 대를 거느리고 마레사란 곳에 이른 것입니다(9절). 그 때에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그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11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므로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12절) 그들은 다 앞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13절). 이렇게 아사 왕의 시작은 창대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과 룽 사람의 군대가 그리 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을 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군대를 아사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16:8).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그의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14:1, 5, 6, 7). 그러나 아사 왕의 나중은 미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으므로(15:9)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16:1). 그 때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2절). 그리고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3절). 즉,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7절).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룽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7-9절). 그 말을 들은 아사 왕은 크게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10절). 그리고 그가 왕이 된지 39년에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12절). 그 결과 그가 왕위에 있는 지 41년 후에 죽습니다(13절). 이렇게 아사 왕의 나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시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가 나중에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의원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시작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나중에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던 그가 나중에는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 유다 왕 아사의 시작과 나중을 생각할 때 과연 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던 그가 어떻게 나중에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찾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지자 오벳의 아들 아사랴의 말 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대하15:2). 즉, 아사 왕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이 심히 미약해진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버린바 된 것입니다. 왜 아사 왕은 시작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람들을 찾은 것일까요? 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사 왕은 구스 사람과 립 사람의 큰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14:9-15). 그 때 아사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 때 그가 그리 승리했을 때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습니다(13절). 그 때 아사 왕과 그의 사람들이 그랄 사면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14-15절). 승리 후 이렇게 물질이 많아진 아사 왕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15:4). 그 때 그에게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습니다(3절).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참고: 14:4) 하나님을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며(16:10)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참고: 14:4). 그 결과 그는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계2:5). 혹시 우리 또한 아사 왕처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 또한 떨어진 것은 아닌지요? 우리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환난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 “나의 연약함”

##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시편 77편 10절).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피부 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역경과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역경과 고난일수록 그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77편 10절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는 시편 77편 1-9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첫째로, 아삽은 불안하여 근심했습니다.

시편 77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 이 세상엔 참으로 곤고한 일과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찬송가474장).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왜 우리는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43:2).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자신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지만(77:2)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였는지 그는 불안하여 근심했습니다. 불안해하는 마음과 근심에 쌓인 마음은 참으로 연약한 마음입니다.

### 둘째로, 아삽은 심령이 상했습니다.

시편 77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시편 기자 아삽은 환난 날에 불안과 근심 속에서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 또한 너무나 괴로워 말할 수 없었습니다(4절).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면 잠도 잘 수가 없고 또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때 한 3주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음식이 앞에 있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도 경험한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나 요즘 마음이 괴로워’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그렇게 괴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괴로움은 진정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침묵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은 연약한 심령입니다.

### **셋째로, 아삽은 위로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시편 77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기자 아삽은 위로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과 근심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아삽은 위로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의 심령은 상해 있었습니다. 옴기 말씀이 생각납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옴, 그를 위로 하고자 찾아온 친구들, 그러나 옴은 그들을 가리켜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말했습니다(옴 16:2). 사람이 너무나 괴롭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우리 삶 속에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 **넷째로, 아삽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시편 77편 7-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셀라).” 시편 기자 아삽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그의 마음과 심령은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아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삽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신은 마음이 연약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연약해진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결국 불안과 근심, 상한 심령과 위로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불신의 싹이 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7편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곧 여호와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제 품에서 죽은 첫째 아기 주영이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때만큼 저에게 고통스러웠던 적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마음에 고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만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념합니다. 현재의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 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연약해졌던 제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고 기념할 때 저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술해야 합니다.**

시편 77편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진술해야 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저보고 왜 아직까지 첫째 아기 주영이에 대해서 말을 하냐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주영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말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영이를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영”이란 이름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나 제 아내는 이겨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영이 때 저희 부부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설교 할 때 나누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일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77편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시편 기자 아삽은 환난 날에 연약함 가운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현재 환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당면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현재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행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까지도 깊이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이러한 묵상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깊은 묵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묵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행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연약해 지는 우리의 육신, 불안과 걱정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도 늘어가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의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 받기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또한 진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탈진

## [열왕기상 19장 1-14절]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가 한계선을 초과할 때 자신에 대한 환멸, 자기비하, 냉소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알리는 위험 신호를 7가지로 정리한 글이 있어 여기에 옮깁니다(인터넷): (1)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 (2)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해 정작 중요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3)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가혹한 압박을 가한다, (4) 항상 자신이 뒤쳐져 있고 최고가 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느낀다, (5) 습관적으로 오래 앉아 일한다, (6) 일을 일찍 마치고 귀가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7) 집으로 걱정거리를 가지고 간다 등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알리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면 결국은 탈진하게 됩니다. 탈진이란 무엇입니까? 탈진이란 문자 그대로 힘과 기운이 완전히 빠져 정서, 신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피로와 무력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탈진상태에 이르면 사역에 대한 의욕을 잃고 신체의 질병과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탈진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4절을 보면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왕상18장)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19:2) 엘리야는 두려워 일어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4절).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탈진 현상에 대하여 4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탈진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후의 위협의 메시지를 받고 두려워했습니다(19:2).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아갔던 엘리야(2절)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3절).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첫째 탈진 현상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은혜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에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사람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문제를 회피하든지 도피할 것입니다.

### **둘째 탈진 현상은 절망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3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4절). 얼마나 낙망하고 절망하였기에 그는 죽기를 간구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기도하였는데 이 말씀은 “It is enough”(NASB), 즉, ‘이젠 되습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져 하나님께 이젠 됐으니 자기 생명을 취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 낙망이나 절망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웬지 피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어떠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사역 속에서 낙망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웬지 저도 목회 가운데 적어도 한번은 엘리야처럼 절망을 경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셋째 탈진 현상은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렘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서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5절). 그리고 그 천사는 솥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줬습니다(6절).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 다시 누웠습니다(6절). 그 후에도 그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권면한 것을 보면(7절) 엘리야는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먹고 마신 후 그 식물의 힘을 얻었습니다(8절).

많은 목회자들이 육신적으로 지쳐 쓰러져 결국에 가서는 이런 저런 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밖에 없는 이 목회자분들을 생각하면 왜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지쳐 연약한 가운데서 탈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넷째 탈진 현상은 극심한 외로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천사가 공급해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주 사십 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러(8절) 굴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10, 14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엘리야가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렘에 있는 굴 안에서 혼자 있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그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탈진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4절).**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역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너무나 일하기에 분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좀 복잡한 생활환경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 홀로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둘째로, 우리에게는 육체적 안식이 필요합니다(5-7절).**

우리는 탈진 현상의 하나인 육신의 연약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쉴 때는 쉴 줄도 알아야합니다. 마르다 같은 일 지향적인 사역자들은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일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야할 때 자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지쳐 쓰러져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좀 광야로 들어가 잠을 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건강관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든 몸을 주님께 받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장막은 점점 더 연약해 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분히 살아드려야 합니다.

##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12절).**

엘리야 선지자는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렘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찬송가511장).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잠24:16). 그 이유는 우리가 탈진하여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오뎅이와 같습니다. 쓰러졌다가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사 우뚝 서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떤 일로 두려움과 낙망 속에서 외로워하며 육신적으로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육체적 안식과 더불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재충전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전심전력하십시오. 승리!



## 낙심 될 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잠언 24장 10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어려움을 우리 홀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벅차므로 우리가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분이 주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는 듯 해보일 때 우리는 더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눅18:1). 이렇게 낙심하고 또 낙심할 때 우리의 힘도 많이 약해져서 우리는 심신이 지쳐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목동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기서 “그”는 바로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돌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가리킵니다(23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24절)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32절). 여러분은 이 다윗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의 말을 듣고 골리앗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지도 않으면서 낙담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을 접하고 또 접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어려움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관계된 큰 어려움이면 우리는 더 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큰 낙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잠24:10하). 그 이유는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좀 철저히 깨달을 때에서야 소망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새찬송가 543장 1절과 후렴의 가사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져도 믿음만은 강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통하여 근심, 걱정,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 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시 42:5, 11; 43: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낙심 될 때에 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임스야,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뒤라.’ 그 때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저의 영혼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성케 하심을 경험합니다(시19:7). 마치 오뚝이처럼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요6:1-15)으로 제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사 다시금 저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금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골리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소년 다윗은 용사인 골리앗을 보고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삼상17:33).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소년인 다윗과의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은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이유는 싸움에서 질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소년 다윗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엡3:12)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 낙망과 불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편 43편 5절).**

사람이 낙망하며 불안해하는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충분히 낙망하며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낙망하며 심지어 절망하며 그 속에서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어떨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3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시편 기자가 낙망하며 불안해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2절). 감사하고 불의한 자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1절)는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2절). 그러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 그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었기에 시편 기자는 낙망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딤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낙망하고 불안해하였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3절).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의 감사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낙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길 원했습니다(4절). 그리고 그는 그 극락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낙망하며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더딜 때에 낙망하며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의 힘이 되신”(2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경건치 아니하고 간사하고 불의한(1절) 원수의 압제(2절)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까지 하며 마음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 (5절). 우리는 낙망하며 불안해하는 영혼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낙망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 사람에게 무거운 것

## [전도서 6장 1-6절]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제 화요일 저는 제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에 갔다가 사랑하는 아들 딜런과 딸 예리는 레슨을 받고 있었을 때 좀 전화할 일이 있어 학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화 후 쫓아 나온 막둥이 예은이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저를 보고 예은이가 좀 저기 가서 앉자고 하더니 자기가 먼저 나무 밑으로 가서 앉더군요. ㅎㅎ 그래서 저는 앉아 있는 예은이게 앞에 서서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How is your life?"(너의 삶은 어떨니?). 그랬더니 예은이의 대답은 "Good"(좋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뭐가 좋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실토했더군요: Actually I am tire(사실 저 피곤해요). ㅎㅎㅎ 6살짜리 아이도 인생이 피곤한가 봅니다. ㅎㅎㅎ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심신이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걸머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리 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3-20절에서 자기가 본 큰 폐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큰 폐단이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13절).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이 본 큰 폐단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켰는데 결국 재난을 만나서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에게 아마 것도 물려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결국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15절) 이것도 폐단이라고 말했습니다(16절). 아무리

자기 자신을 해 할 정도로 그 모든 재물을 지켜서 무엇 합니까? 재난을 만나 다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결국 자식에게도 물려 줄 재물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참으로 큰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절에서도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또 한 가지 폐단을 보았는데 그 폐단은 바로 사람에게 중한 것, 즉 사람에게 무거운 것[(8:6)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나”]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사람에 무거운 그 폐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에게 무거운 그 폐단이란 하나님께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아 마음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그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수고케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재물을 모아 쌓게 하신 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모든 죄인의 재물을 주시사 누리게 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 즉 ‘고통을 주는 악’(evil of affliction)이라고 했습니다(2절, Swanson).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이 본 폐단은 이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100명의 자녀들도 있고 또한 장수하여 오래 살찌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3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 부요, 존귀에다가 자녀 축복 및 장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므로 그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악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복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그의 몸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악한 병입니까? 그 당시 동양에서는 죽은 시신이 매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제일 큰 수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모든 부요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매장도 되지 못한 사람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3절하). 어떻게 낙태된 자가 모든 부요를 누리지 못하며 죽을 때에도 매장 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4-5절을 보십시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 아무 슬퍼하는 자들도 없고 명예도 없이 죽으면 낙태된 아기보다 더 나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보기엔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생명은 이 세상

햇빛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죽지만 하나님께 받는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의 축복, 장수의 복을 제대로 누리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에도 아예 매장도 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낙태된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태된 아기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재물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때에 매장도 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 낙태된 아기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4:3).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모든 재물과 부요 등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을 보면서 살다가 죽을 때에 제대로 매장도 되지 못하는 사람보다 비록 낙태되었지만 그 낙태된 아기는 이 세상의 근심과 고통 그리고 노고와 괴로움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함을 얻기에 낙태된 아기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결국 낙태된 아거나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어 천 년의 갑절인 이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 낙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자나 마침내 다 한 곳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보기엔 이것도 폐단이요 사람에게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을 찬양했을 때 교인 중에 한분이 저에게 그 찬송가를 부르면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 또한 찬송가 363장을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곤 합니다:

-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 (2절) 내 모든 괴롬 닦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 (3절) 내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대 신 짐을 저주시네
-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할 때 저는 저의 무거운 짐을 맡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므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저의 무거운 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찬양을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제 마음이 무겁고 목소리가 처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인가 원로 목사님이 계신 선교지에 갔었을 때 새벽 4시 경에 방에서 누워 잠들다가 원로 목사님이 장애인들과 어느 집사님과 새벽기도회를 하시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의 찬양 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전혀 마음이 무거움을 느낄 수 없는 힘찬 찬양 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찬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원로 목사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겸손히 응하셔서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 버리셨기에 마음에 쉼을 얻으셔서 주어진 주님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여기실 수 있으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폐단을 볼 때에 혹여나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나아가 겸손히 내려놓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이 세상의 무거운 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찌라”(출애굽기 6장 6-7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저주시네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찬송가 363장 1절과 후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시90:10).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과 죄악 된 일 그리고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을 우리 어깨에 저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특히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 된 일들을 보고 들을 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이런 저런 죄악 된 일들이 나타나고 들춰질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속화 되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무거움과 슬픔 속에서 오늘 새벽기도회 때 묵상하고 전파한 말씀인 출애굽기 6장 6-7절을 다시금 묵상하며 적어 내려가 봅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출3:7)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신(9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사(4절) 그를 설득시켜(3:11-4:17)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5:1). 그 말씀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2절). 저는 “여호와가 누구관대”라고 자신의 무지함을 들어내며 불순종한 바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관대”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4:11). 결국 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나를 모르던지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라고 말하는 줄 생각하여(5:8, 17) 그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했습니다(9절).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이 말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9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고역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고(6:9)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5:21).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23-24절).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여 바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24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6:1-5)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6-7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핵심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어 이스라엘 자손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8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했습니다(9절). 결국 애굽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리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의 귀에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설득과 설복을 당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사단은 바로와 같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역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일 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서 주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에 부지런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자꾸만 우리의 귀에 속삭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게 하므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어내(건지)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6:6-7).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우고를 알고 계시며 우리 상한 마음의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3:7, 9).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8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장 28-30절).

##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민수기 11장 11절).**

여러분, 아래 항목 중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 (2) 성생활을 포함하여 한 때 즐거웠던 일이나 취미생활에서의 의욕 및 흥미상실, (3)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 사고, (4)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5) 불면, 아침에 일찍 깨거나 과도한 수면 (6) 식욕감소나 체중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7)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처지는 기분 (8)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기도 (9) 초조감, 쉽게 짜증이 남 (10)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11) 두통, 소화기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12)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증상. 이 체크 목록은 바로 우울증 증상 체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에 목록에 2가지 이상이면 초기 우울증의 증세이고 5가지 이상이면 심한 우울증 증세라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글을 읽고 제 자신을 뒤돌아 본 후 제 개인 페이스 북 홈페이지에다가 “오늘의 페이스 북 토론 질문: 우울증?”이라고 썼습니다. 페이스 북 친구들과 우울증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고 싶어서 그 글을 올렸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depression 상태인 듯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주어진 모든 게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네요. 그저 얼른 주님 오셨으면. 건강한 성도의 주님 오시길 바라는 소망과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주어진 모든 게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 볼 때 저는 혹시나 제 자신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혹시나 선물이라기보다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 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기기보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제 자신에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짐으로 느껴진 제일 큰 원인은 그들에게 있기보다 제 자신에게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육신의 가정과 영의 가적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망하므로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짐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운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찬송가 후렴을 부를 때 마음이 뭉클하고 벅차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1절을 보면 무거운 짐을 홀로 질 수 없어 괴로워하는 모세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11절). 모세는 보행자가 600,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짐으로 여겼습니다(21절). 왜 모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으로 여긴 것입니까?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므로 그들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4절)고 말하면서 또 다시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들은 모세는 힘들어 했습니다(10절). 상상이 되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저희 집 세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세 녀석들이 돌아가면서 울 때 물론 제 아내가 제일 힘들었겠지만 저 또한 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리 좋은 것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보행자 600,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10절) 소리를 듣고 있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11절)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자기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설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홀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 토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죽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15절). 모세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웬지 우울증 환자가 자살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짓눌림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짓눌림 속에서 더 이상 홀로 그 무거운 짐을 걸머질 수가 없어 쓰러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까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탐욕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하랴”(4절)고 울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도 들으시사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20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21-22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보행자 600,000명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족하지 않을 터인데 광야에 양 떼와 소 떼가 있습니까? 그리고 광야가 바다가 아닐진대 어떻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23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대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시어 모세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16-17, 2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31-33절). 과연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뺏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만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하는 불평, 원망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이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만과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 가운데 거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도 영적 침체에 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처럼 탐욕을 품기 때문입니다(4절).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약1:15). 결국 욕심을 낸 백성들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민11:33) 기브롯 핫디아와란 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34절).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우리 주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셨던 것처럼(출6:6-7) 우리를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우리 죄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시68:19).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삿전5:7).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실 것입니다(마11:28).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주실 것입니다(29절).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낙망한 영혼을 다시금 소성케 하실 것입니다(시19:7).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렘16:19).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 참담한 마음

## [시편 143편]

제 사촌 동생 중에 어릴 때 어둡고 캄캄한 방을 참 무서워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형제가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방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자라나면서 자기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부모님의 징계로 아마 아버지가 자기를 어두운 방에다 집어넣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중학생인가일 때 저희 교회 학생회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었는데 이 형제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하도 안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형제를 어두운 곳에 홀로 뒀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형제를 징계한 것입니다. 그 때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방이나 장소를 무서워했던 이 사촌 동생이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a) 몹시 암담하다”, “(b) 참혹하다”라고 적혀 있고 한자사전에는 “(a) 어둡침침하고 쓸쓸함”, “(b) 참혹하고 암담함” 또는 “(c) (일이나 상태가) 비참하고 막막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 히브리어 원어 의미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인 큰 재앙(재난)이 임하므로 말미암아 소름끼칠 정도로 마음이 두려워하였다’는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큰 재난을 만나 그의 인생에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였고 마음이 참담했을 때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한마디로, 다윗의 상태는 ‘상한 심령’ 또는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3절에서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시편 143편 4절에서도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해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마음이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심령이 속에서 상해있었습니까? 왜 다윗의 마음이

참담해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엮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였던 이유는 그의 원수가 그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원수는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70인경의 어떤 사본들에는, 이 시편 표제에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란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시편 142편에서 다윗을 핍박하였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 시편 143편에서 다윗을 핍박하며 그의 생명을 노렸던 사람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자기의 심령을 상하게 하며 마음을 참담케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는 다윗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닌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에게 받았던 핍박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이 일곱 회개 시편들(6, 32, 38, 51, 102, 130, 143) 중 최종편이라고 합니다(박윤선).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 그러므로 자기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 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생각할 때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핍박하는 원수가 자기의 핏줄이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다윗의 입장에 서보려고 상상해 볼 때 저는 자식에게 쫓겨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는 이미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43:3).

이러한 절망적이고 괴로운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3편 말씀 중심으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첫째로, 다윗은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저는 시편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종종 시편 기자의 기도의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패턴 중 하나는 바로 과거의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기자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되새겨 보는 기도 습관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는 주로 과거를 뒤돌아보는 습관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런 저런 과거의 힘든 상황들과 안 좋은 추억들 등 사람의 썩은 냄새가 나는 죄악 된 기억들과 내 자신이 죄를 범한 행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았는데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성령님께서 초점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저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케 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 줄 알지만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43편 5절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했을 때 분명히 시편 142편 말씀의 배경인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 사건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42편이나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이나 다윗의 심령은 속에서 상해 있었고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좋은 예로 저는 요한복음 21장 9절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15, 16, 17절) 물어보실 때 그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하고 너무 흡사했습니다. 어떻게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다 두 상황 다 “(숯)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55절에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분명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시고 그 위에 생선을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육지에 내린 제자들 중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과거의 불 가운데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죄가 기억이 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시므로 베드로의 죄책감에서 건져주시사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 다윗처럼

현재 삶 속에 고통과 역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과거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과거에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셔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마지막 둘째로, 다윗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6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셀라).” 다윗은 그의 원수의 핍박 가운데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절망적이고 괴로운 참담한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여 그에게 손을 펴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였습니다(7절).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7절).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 4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 (1) 다윗은 자신의 불성실함과 불의를 바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과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참담할 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진실)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42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43편에서도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신실(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습관이 되어 할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죄로 인한 결과인지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래서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진실)하심과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2) 다윗은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8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음이니이다.” 다윗은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마음이 속에서 참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아침에 자기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 다윗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을까요? 다윗이 주님을 의뢰하여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이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배워 그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10절). 그래서 그는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8절).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 징계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야할 길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릇행하여 하나님께 범죄 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진실(신실)하심과 그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3)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심령이 상하였고 마음이 참담하였을 때 그는 주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에서도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주위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하지 않고(142:4) 오직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5절) 피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143편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숨어 그의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1절에 다윗의 구원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 (4)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심판해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다 끊으시고 멸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주님의 종이지만 다윗의 원수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기에 선택받은 주님의 종을 주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기억하시고 보시사 자기는 구원해주시고 악인은 멸해 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인자하심 따라 주의 선택받은 종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종이 아닌 선택받지 못한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과 공의가 들어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과 심판 혹은 심판을 통한 구원으로 인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시편 기자 다윗처럼 과거의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잠시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할 때

**“젊어서 결혼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듯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사랑으로 다시 너를 맞이하겠다. 내가 잠시 분노하여 너를 외면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은 너의 구원자 나 여호와의 말이다”(이사야 54장 6-8절, 현대인의 성경).**

언젠가 새벽기도회 때 이사야 48장 9절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먼저 제 자신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 하며 참고 참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날 새벽기도회 후 운전하고 운동하러 가다가 분노하였고 그 분노를 분출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서 뒤에 있는 차가 빵하고 경적을 누르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운전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 마음은 양심에 찔림 속에서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목사란 사람이 이렇게 예배당을 나오자마자 새벽기도회 때 설교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는지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심 때 즈음 저는 ‘어차피 오늘 죄를 범했으니 또 죄를 범하는 것 즈이야’라는 생각으로 알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양심에 찔림 속에서 마음이 무겁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아침과 점심을 보낸 후 오후가 되어서야 갑자기 오늘 새벽기도회 때 설교한 이사야 48장 9절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에게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오늘 노하기를 더디 하지



못했고 참지 못하여 죄를 진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때에는 이렇게 죄를 범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돌아서기만 하면 선포한 말씀조차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먹칠하는 저 같은 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해주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어제 새벽기도회 때 이사야 54장 6-8절을 읽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잠시” 분노하여 저를 외면하시고(8절, 현대인의 성경) “잠시” 저를 버리시지만 큰 사랑으로 “다시” 나를 맞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묵상했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회개치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죄를 들춰내실 뿐만 아니라 저의 죄를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양심에 찔림을 주시사 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므로 또 다시 동일한 죄를 하나님께 수 없이 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금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 저를 징계하십니다. 그 때 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저를 외면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통이 길어지면 질수록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포자기까지 합니다. 그리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때 저는 마치 젊어서 결혼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아내처럼 제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남편의 분노 속에서 외면을 당하다가 버림을 받았을 때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남편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부르시고 큰 사랑으로 다시 저를 맞이하시며 영원한 자비로 저를 불쌍(공휼)히 여겨 주십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나의 구속자 하나님께서는(8절) 잠시 저에게 분노하시고 잠시 저를 버리셨지만 저를 다시 부르시고 큰 사랑으로 다시 저를 맞이해주시며 영원한 자비로 저를 공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마27:4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으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는 저인데, 예수님께서 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또한 큰 사랑으로 저를 맞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원한 자비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영원한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시편 62편 8절).**

은혜를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난 2016년도에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가 총만한 가운데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마음이 좀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이 우울해지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함은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왜 제 마음이 우울해지려다가 다시금 관촬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오늘 본문 시편 62편 말씀을 읽다가 3절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 다윗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일제히 연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원수들은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로서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4절). 즉,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되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보호막을 흔들어 놓고 넘어트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요 전략입니다. 사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잠4:23)의 보호막과 같은 담과 울타리를 흔들어 놓고 심지어 넘어트리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며 우울케 하며 심지어 절망케까지 하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2가지로 목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신뢰)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현대인의 성경) “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2가지 진리를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1)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10절, 현대인의 성경)과 (2)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1, 2, 5, 6절). 사탄이 우리를 특히 물질의 유혹으로 많이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에 사탄은 돈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유혹합니다. 유혹하되 사탄은 심지어 우리의 재산을 늘어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게까지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8절). 의지하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1, 5절).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2, 6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 5, 11절과 43편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제 기도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특히 제가 낙심되고 제 속에서 불안해 할 때 저는 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제임스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제임스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제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성케 하여주시고 일으켜 주시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에 시편 기자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62:5)고 제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1, 5절).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2,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2, 6절). 오히려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사30:15).

**마지막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셀라).” 공동체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나눴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서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끼어 앉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 하는데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문화가 형성돼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그 찬송가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토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8절). 그가 그리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3-4절) 자기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토해냈었기 때문입니다(7절). 그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의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1)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11절)와 (2)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12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며(사30:15)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시63:3).

우리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들입니다(62:3, 현대인의 성경). 사탄과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3절).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로서 입과 속이 다른(4절) 속임수로(9절)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있습니다(4절). 그들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신뢰)해야 합니다(8절). 우리는 잠잠히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1, 5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8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11-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2, 6절).

# “내 마음이 놀릴 때에”

## [시편 61편 말씀]

요즘 D. M.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영적 투쟁”(The Christian Warfare)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사랑하는 동역자 한분과 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영적 싸움에 대하여 더 알아야겠다는 관심과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옴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마귀는 어느 정도 자연까지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아래 옴을 치기 시작했을 때에 옴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옴에게 와서 그의 소와 나귀를 빼앗겼으며 지키는 자들은 살해당하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옴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 하나님의 불이 - 즉 번개가 -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 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옴1:16). 여기서 번개를 일으키는 것과 번개로서 파괴시키는 일이 마귀의 영역과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마귀가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정신을 집중적으로 교활하고 무서운 권세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귀는 여러 가지 귀계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존스). 그 예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마귀가 지극한 공포의 영이 그에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존스).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은 요즘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마취를 당하고 혼미하게 되어 잠에 떨어지고 전혀 그 투쟁(영적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존스).

항상 덧과 울무를 놓고 있는 마귀, 그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기소침, 낙심, 패배감 그리고 완전한 절망감은 일반적으로 마귀의 활동의 결과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기소침하며 낙심하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감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가 본문 시편 61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내 마음이 놀랄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은 “자포위”(self-enveloping)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여러 가지 우고에 싸여서 기진맥진해 갈고 절망되어 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원수들(3절)의 핍박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었던 다윗,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마음이 놀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여가 하는지 4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첫째로, 마음이 놀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언제가 수요기도회 때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낙망과 절망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자고 도전한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망하며 절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내 마음이 놀랄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다윗은 “땅 끝에서부터”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너무나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느낌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포자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나 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높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바다 깊은 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한 것처럼(욘2:4)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 **둘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셀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눌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속에서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3절).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자기에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이 짓눌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 주님께 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꼭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혹은 예정)하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신실히(진리로) 이행하실 줄 믿음으로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인생의 절망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인자)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소망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4절). 우리는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바라봐야 합니다.

### **셋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과거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권이 일시 동안 불의한 압살롬 일파에게 갔다가, 다시 다윗의 손 안에 돌아온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과거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하나님께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다윗은 원수로 인하여(3절)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본능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면서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 천사의 어루만지심과 먹여주심으로 인하여 호렘산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있느냐”(9, 13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삼하오니”(10, 14절)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자기 행위(혹은 공로)를 주장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기억치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잊지 못하고 거듭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 우리의 삶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과거의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때 그 때 고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눌릴 때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의 기억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 7절을 보십시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 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길 간구했습니다(6절). 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길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장수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길 간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로 인하여 마음이 놀려 절망가운데 있는 다윗,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피한 후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므로 소망하되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길 간구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로서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 하실 때에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계22:20).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에게 피한 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시61:8).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께 피한 후 과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길 소망해야 합니다.

## “내 속에 놀리는 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린도후서 11장28절).**

저는 뭣도 모르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목사 경험도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쪽 자라났던 승리장로교회에서 아버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실 때 부목사로 딱 1년 섬긴 경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 후 탈진하여 요나처럼 아버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서현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그것도 영어사역을 섬기다가 나중엔 새 가정부도 좀 섬겼었습니다. 그것도 다 합쳐서 2년 9개월뿐이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되는데 경험이 다는 아닌 줄은 압니다. 그저 그만큼 부족한데 주님께서 교회갱신목회자협회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주시므로 다시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버님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제가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금년 12월 21일이면 15년이 됩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James, you have changed’(제임스, 당신은 변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때 아내의 그 말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지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처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허심탄회 하게 말도 못하고, 교제도 마음 것 못하면서 늘 교회 목양실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가 뭐길래 내가 이렇게 변했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담임 목사”란 직분에게 주어진 압력(pressure)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압박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낄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부여하는 압력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저런 신경 쓰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원치 않는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제 마음엔 종종 놀리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자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놀리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혹여나 성도들이 연약하여 실족하게 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러한 바울의 염려, 그의 애타는 마음에는 두려움조차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사단이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3절).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4절)을 용납하여 믿음에서 떠날까바 염려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짓 사도요 케홀의 역군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3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14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므로(15절) 믿은 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염려로 인하여 바울은 날마다 마음이 놀렸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염려로 인하여 속에 놀림이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들 가운데 연약하여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에게 미혹되어 믿음을 떠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 염려 외에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많은 염려들이 있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염려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지 안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염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놀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놀린 마음을 소성케 해 주실 것(restore)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 활력을 넣어 주실 것(refresh)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을 부흥케 하실 것(revival)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 [시편 142편 말씀]

여러분, 혹시 요즘 고통 거리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은 가시덤불처럼 이런 저런 고통거리들로 이리 저리 엉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런 저런 병이 걸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가시덤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엉키고 엉켜서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들곤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참으로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가 질문을 해볼 때 그 원인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세상과 염려와 재리의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인터넷).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이런 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엉키고 엉켜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그 엉킨 것들을 우리 힘으로 풀어 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엉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가시덤불처럼 이런 저런 고통거리들이 엉키고 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내 원통함”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시아크”인데 그 단어의 뜻은 “덤불”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 “덤불”이란 말은 다윗의 삶에는 고통거리들이 한 돌이 아니어서 가시덤불처럼 얽혔으므로 질시할 지경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왜 다윗은 이렇게 질시할 지경에 놓여있을 정도로 고통 거리들이 한 돌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6절, 박윤선). 핍박을 받던 사울 왕은 다윗의 행하는 길에서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 놓기까지 하였습니다(3절).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찾고 있었고(삼상18-24),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22:1). 보기에 는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MacArthur).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다윗의 아주 절박한 상황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시편 142편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즉,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하여 심히 비천해지고 약한데 놓여 있었습니다(6절, 박윤선). 이러한 다윗의 심히 비천하고 연약한 상태는 외부적으로는 그는 현재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윗의 심령이 속에서 상해있었고 또한 원통함이 있었습니다(2, 3절).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시편 142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전적으로 버림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은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신경을 써 주는 사람들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위에 모든 것을 차단하시는 듯 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로 쏟아 내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그가 처한 비천한 자리에서도 낙심치 않고, 도리어 소망 중에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기도로 다 쏟아냈습니다(박윤선). 3절을 보십시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해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원통함이 있었기에(2절) 그의 마음은 상해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 그는 그의 심정을 마음에 하나님께 쏟아 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다윗의 기도 내용을 3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는 신념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우편을 둘러봐도 자기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자들도 없었을 때(4절)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해있고 우리 안에 원통함이 있을 때 여기 저기 주위에 사람들에게 쏟아내어도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피난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만 믿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분깃”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그를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찬송가 82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애통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 둘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 6절을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심히 비천한 상태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에게서 건져(구원해)주시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과 그의 무리들은 자기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심히 연약해져 있었기에 다윗은 자기의 심히 연약한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고통과 역경 가운데 주위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복음 성가 “약할 때 강함주시네”라는 찬양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저는 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들의 강한 속사람의 모습을 엿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심히 연약해 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히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여 그 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를 후대하실 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비록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지만 그 감옥과 같은 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내실 줄 믿었습니다. 한 마디로,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확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사 의인들로 하여금 그를 두르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2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우편을 보아도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5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피하는 가운데 7절에 와서는 그를 돌아보는 의인들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 주님의 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 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죄악 된 일도 많고 죽을 일도 쌓였습니다(찬송가 474장).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런 저런 고통스러운 일들로 엉키고 엉켜서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통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쏟아낼 때도 없는 외로움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의 심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쏟아내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피난처와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께 건져(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내 영혼이 억울할 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시편 57편 6절).**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라도 좀 알면 좋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여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모아 나에게 대하여 말을 만들어 나를 비방하며 모함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나를 넘어트리려하며 심지어 그들은 나를 위기에 몰아넣으려고까지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억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리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주었는데, 사울 왕은 질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므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이 시편 57편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억울할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 한 5가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자기가 당면한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했습니다(1절).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억울할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61:3).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광풍이 몰아닥칠 때에 그 폭풍과 광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속히 피해야 합니다(55:8).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36:7).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여(62:8) 우리의 영혼이 억울할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17:8)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 안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리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갇힌 동굴 안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낙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굴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위하여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생각납니다. 동서남북 갇힌 감옥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신앙인은 모든 결과를 떠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상황에 근거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기에게 보내실 줄을 믿었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울 왕에게 피하여 굴 안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줄 믿었습니다(3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첫째 아기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은 시편 63편 3절이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희 부부는 이 말씀을 월요일 아침에 받고 첫째 아기 주영이를 빨리 죽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주영이 중심으로 모인 가족 식구들이 동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모든 기계를 끄고 호수를 빼낸 후 주영이는 제 품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나중에 주영이를 화장한 후 뿔가루를 뿌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굉장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 인생의 최대의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내시사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기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습니다.

**넷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접한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신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줄 믿었습니다(1-3절). 결국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질 것과 재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7절). 그 결과 억울했던 다윗의 영혼은 깨어 새벽을 깨웠습니다(8절). 우리의 영혼도 깨어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흥미롭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하였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는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재앙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면서(9절)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다윗은 그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3절)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하고 재앙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피신하였을 때 그가 간구한 하나님의 은혜, 그가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뜻, 그가 사모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므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궁창에 이르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가 없는 마음의 추억입니다. 저는 제 셋째 삼촌 목사님의 입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찬송가 40장(“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을 모든 조문객들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특히 저는

후렴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를 부를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경험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제 셋째 삼촌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티와나 멕시코에 선교 가서 멕시코 장애인들 앞에서 그 찬양 후렴 가사를 스페인어로 찬양했던 그 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셋째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 가족 신년 예배 때 암으로 고통당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몸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암 환자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장례식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숨어있었으면서도 그 재앙과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되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했던 다윗을 생각할 때 도전을 받습니다. 저 또한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나 목회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 기도의 영역이 너무나 한정돼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시57:4). 왜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3절). 마치 사람 앞에 웅덩이를 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빠지게 하려는 것처럼 별의 별 웅덩이를 파서 형제, 자매로 하여금 빠지게 만들려고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대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깊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5절).

## “갇혀 있을 때에”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예레미야 33장 1절, 현대인의 성경).**

감옥에 갇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 다 돌아보아도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참막막하게 여겨져서 그저 멍하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방이 다 벽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새벽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교회 사역이나 가정 사역이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리할 때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때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믿음에 조금이나마 더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인내하며 견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충분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궁중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일까지 겪어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만 전한 것 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요?’ 등등. 그리고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흉해 바다 앞에서 갇혔을



때(출14:3) 뒤에 쫓아온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임아 심히 두려워하여 원망하였던 것처럼(8-12절) 예레미야 선지자도 충분히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렘33:1). 어쩌면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리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도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매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딤후2:9). 궁중 감옥에 갇혀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는 간략하게 2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드셨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되 주님은 우리를 쓰실 수도 있으시고 안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도구인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면 쓰임을 받는 것이고 쓰지 않으시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뤄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옥에 갇힌바 된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사도 바울은 “착한 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우리도 바울처럼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되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든다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뤄지길 기도하며 또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 **둘째로,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궁중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에게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욘1:1-4) 그는 바다에 던진바 됩니다(11-15절). 그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17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2:1).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갇힌바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하되 그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4절). 그리고 그의 기도의 결론 고백은 “구원의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였습니다(9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고(10절) 요나는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한 바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2:1-4).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때가 바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돌아보아도 문제의 해결점을 보이지 않고 벽같이 느껴지는 것만 보일 때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궁중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궁중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므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렘33:3).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경배하였지만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면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재앙을 내리시되 바벨론을 사랑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훼파되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약속 외에도 70년이 지난 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 중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6절).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므로 그들 중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하게 하시며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7절). 처음과 같이 세우시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낮게 하시사 그들에게 평안과 견고함(“진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6절).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목상할 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도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창39:14-18)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20절).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족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한 요셉은 그 옥에서 2년 동안이가 있었습니다(41:1).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이나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별의 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제가 만일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면 감옥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었던 요셉(37:3)이 17살 때(1절)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사(37:5, 9) 그의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5절) 결국에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25-28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을 거하게 하셨습니다(39:7-23, 41:1). 그리고 13년 후인 요셉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케 하시므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41장). 이렇게

요셉의 나이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의 기간에 그는 2년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젊은 나이에 2년이란 귀한 세월이 허비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 2년의 감옥 생활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에 요셉은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났습니다(40:1-4).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5-15절). 그 결과 2년 후에 전직을 회복한(21절)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도 해석을 합니다(41:9-36).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41절). 왜 하나님께서 이리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요셉에 애굽으로 내려온 그의 형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45:4-5).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요셉은 쓰임을 받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저런 상황들을 접하게 하시고 그 상황들로 인하여 제 자신이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허덕일 때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과 같은 상황도 사용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할 때 저의기도 제목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행16:25).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시편 책 주석(“The Book of Psalm” by Mark D. Futato)을 토대로 시편 기자와 바울과 실라를 생각할 때 저는 감옥에 갇힌바 된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편 기자 다윗처럼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될 때 아직도 감옥에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행16:26-34).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의 역사입니까?

# 간헐바 되었을 때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창세기 39장 21절).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랑하는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분들의 육신의 고통을 제 눈으로 직접 볼 때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 옆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서도 저는 특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몽글하면서 나오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그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큰 은혜의 힘으로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만 주일 아침 교회당으로 와서 그분들의 빈자리를 보면 또 다시 그분들의 추억으로 인하여 그리움 속에 잠기곤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많이, 크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 말에 정희 교회 성도님이신 고 안덕일 전도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떠나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신 작은 깨달음은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이 나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창39:6) 자기 주인인 애굽(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1절)의 아내가 눈짓하다가(7절) 날마다(10절) 동침하기를 청하였을 때(7, 10절)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9절)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다(10절).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러 자기 주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자기주인의 아내만 있었습니다(11절).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12, 13절).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은 집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리를 검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14절) 자기 남편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도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자 요셉이 옷을 자기에게 버려두고 달아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16-18절). 그 결과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지만(20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21절). 간수장은 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옥 안의 제반 업무를 요셉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했습니다(22절). 그리고 그는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2, 3, 21, 23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사 불신자로 하여금 우리의 형통함을 보게 하십니다(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4, 21절).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형통한 자에게도 유혹이 있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7-20절). 그 결과 우리는 갇혀서 동서남북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21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갇힌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게 경험하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힘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 경배케 하십니다(시63:3). 할렐루야.

# ‘주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현대인의 성경)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누가복음 12장 26절).

제가 요즘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및 치매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또한 저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식구들을 생각할 때에도 염려가 됩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까 생각하면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저는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벘전5:7) 저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난 후 돌아서면 그들이 생각날 때 또 다시 염려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 염려를 다 주님께 못 맡기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 믿음이 적어서 그렇구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6절 문맥을 보면(22-34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22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29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5절). 우리가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2)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6절).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6절, 현대인의 성경). (3) 그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6:32, 현대인의 성경). (4) 그 네 번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눅12:3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28절).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우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22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까마귀를 생각해야 합니다(24절).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아야 합니다(마6:26).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난번에 영어사역 연합 수련회를 산으로 가서 아침에 숙소 밖 뒤 베란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날라 다니다가 나무에 앉았다 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는 그 새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도 기르고 계시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나를(사43:4)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기르시지 않으시겠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기르시사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풍족히 주셔서 음식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한 번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음식이나 옷이나 넘치도록 과분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저런 일들로 염려를 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합니다(마10:19). 또한 저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합니다(고전7:33). 저는 교회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고후11:28, 참고: 눅10:41).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까봐 염려합니다(신29:18). 특히 저는 제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까 염려합니다(딤후3:7). 이렇게 저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눅21:34) 또한 이렇게 세상의 염려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혀 결코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막4:19). 저는 이러면 안 되다는 것을 알면서도(막4:19)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일 때문에도 염려를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미래) 일루도 염려를 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6:34).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싶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염려한다고 그 염려하는 일들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작아서이겠지요.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견고히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에 급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마6:33)을 믿음으로 붙잡고 제 마음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헌신하길 원합니다(롬10:17). 그러면서 저는 종종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마6:28).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도 기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새와 꽃보다 훨씬 귀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 너무나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안심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앓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역대하 32장 7-8절).

그것을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욘21:6). 지금 내가 처해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식욕도 잃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내 능력 밖에 일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시77:3, 현대인의 성경). 기도도 나오지 않아 그저 믿음만 할 뿐입니다(시38:8). 이렇게 너무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7-8절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 생각하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처한 상황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 큰 위기는 바로 앓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 것입니다(1절). 이러한 큰 위기를 접하면 우리의 본능은 충분히 ‘왜 이런 큰 위기가 나(또는 내 가정)에게 온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위기를 나에게 주신 것(또는 허락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수 없이 던져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히 섬기고 있었는데 왜 이러한 큰 위기가 나에게 닥쳤는지 ...’ 우리는 우리의 명철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개혁을 일으켰는데(31장) 왜 하필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1절) 이런 큰 위기를 당하게 하셨나요?’ ‘저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29:3), 유다 여러 성읍에서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 및 산당들과 제단들을 깨뜨리며 찍으며 제거하여 없앴는데(31:1),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였는데(2절), 십일조를 갹신(5-6절)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는데(20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는데(21절), 어떻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32:1)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인가요?(2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다 왕 여호사밧도 개혁을 일으킨 후에(19:4-20:1) 큰 무리인 적군들이 쳐들어 왔었는데(20:1-2)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일으킨 후에(31:1-32:1) 적군들이 쳐들어 왔다(1-2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성경에서 볼 때에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왕들의 삶 속에 이러한 큰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히기야 욥이란 인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를 접한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롬12:2)이 있으실꺼야.’ 물론 욥의 경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위기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큰 위기와 고통을 감수하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잠3:5)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앗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우리에게(대하32:9) 한 말 때문입니다: “... 무엇을 의뢰하느냐”[“네가 무엇을 믿고 것처럼 담대해졌느냐?”(왕하18:19, 현대인의 성경)]. 과연 산헤립의 말처럼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뢰”하였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7, 8절).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였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낙심하지) 않았습니다(7절). 특히 유대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였기에 그는 예루살렘 성문 광장에서 유대 백성들을 모아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6절). 그의 위로의 말(메시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확신의 찬 말이었습니다. 그 확신의 찬 말은 바로 ‘우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앗수르 왕 산헤립과 함께한 그를 따르는 온 우리보다 크시기에 (7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8절). 실제로 열왕기하 18장 5-6절을 보면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8절).

히스기야 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았습니다(대하32:7). 그랬기에 그는 예루살렘 성안의 모든 사람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 놓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6절). 그 결과 그 모든 사람들도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8절).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유대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므로 두려워하며 놀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7절, 참고: 왕하18:22, 30).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대하32:7-8),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11절, 참고: 왕하18:32)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앗수르 왕인 산헤립과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으며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대하32:7, 8).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낙심될 만한 상황과 불안한 상황을 접할 때 성령님께서 종종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케 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제임스야, 네가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서는 저의 시선을 낙심될 만한 상황과 불안한 상황에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며 부흥케 하시사 다시금 일으켜 주시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14:27),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9:2),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22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우리 하나님이며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역대하 20장 12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두 살 때 영어 알파벳 하나도 모르고 부모님 좇아 미국에 와서 처음 학교에 갔었을 때 그 다음 날에 영어 단어 20개 본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날 밤 울면서 영어 단어 20개를 다 외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가서 시험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어제 새로 들어 왔으니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ㅎㅎ 제가 사춘기 때에는 미국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좋을지 몰라 방황한 기억도 납니다. 또한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답시고 해도 점수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해맨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는 너무나 공부가 힘들고 체력이 바닥이 나서인지 결핵성 늑막염이 걸려 수술한 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6개월 쉰 기억도 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을 때에는 첫째 아기 주영이가 어린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에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때 저는 망치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답해야 좋을지 몰라 참 난감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삶을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참 많고, 자녀 양육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많으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취볼 때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이거뿐이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 상황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략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대하20:1-2, 현대인의 성경). 그 상황을 보고 받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3절).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새 뜰에 모여들 때 여호사밧 왕은 군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4-12절). 그 기도 내용 중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저는 그 기도 내용을 3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1)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2)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가랴의 아들인 야하시엘을 통하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하셨습니다(14-15절).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가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를 치러 온 그 큰 무리(엄청난 대군)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일부 마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를 치러 온 그 엄청난 대군과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목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 15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제 자신과의 영적 싸움도 제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나마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할 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계셨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얹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 15절을 읽다가 “이 전쟁이 …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제일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목회입니다.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읽다가 목회도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적 전쟁이든 생사화복이든 목회도 저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출애굽기 14장 13-14절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믿음대로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 엎으셔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출14:27-30).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대하20:1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였습니다(17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우리의 대적 자들을 맞서 나가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임마누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역경에 처해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능력이 없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취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수1:5).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렘1:8).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잠3:5, 대하20:20). 만일 우리가 임마누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가 접한 두려운 상황을 맞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8-19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릇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15-17절)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유다군이 드고야 광야를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에도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20, 21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시므로 다 죽게 하셨습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유다 사람들이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곳 이르러 적군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미 죽은 시체만 땅에 엎드려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24절, 현대인의 성경).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은 가서 시체를 살살이 뒤져 금품과 의복과 그 밖의 전리품을 거둬들였는데 물건이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은 4일째가 되는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26절, 현대인의 성경).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입니까(27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27-28절). 모든 인접국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였고 그 결과 여호사밧은 평화로운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를 안전하게 지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29-30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큰 위기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사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임마누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 지배를 받으면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 지배를 받기보다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가둔바 되고 그들의 발에는 쇠고랑을 든든히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접할 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적인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의 담당 의사가 저에게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아니면 빨리 죽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 날 성경책을 읽다가 시편 63편 3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주영이의 55일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영이를 ‘let her go’(떠나보내자)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주영이를 빨리 죽게 하겠다고 담당 의사에게 연락한 후 저의 부모님과 형 부부와 여동생과 함께 주영이가 누워있었던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아기는 제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부부는 아기를 화장한 후 뿔가루가 든 조그마한 박스를 들고 배를 타고 나가서 물에 뿌렸습니다. 그런 후 저는 작은 배 뒤편에서 배를 조정하고 다시금 육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 앞에 앉아 있었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타이타닉”(타이타닉 영화)이라고 말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영어 복음성가 “My Savior’s Love”(나의 구원자의 사랑)을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다시금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진정 하나님께서 그러한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 “괴로울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이사야 53장 7-9절).

여러분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서가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보라”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1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후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말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과연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는 괴로울 때 괴로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실망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입을 열어 변호합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게 되면 법정에 서서 변호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7절).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기도의 삶”에서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저주의 말이나 내가 쓸모없다든지 모자란다든지 하는 말을 듣기가 너무 두려워, 다시 입을 열어 계속 말하고 싶은 유혹에 금방 넘어간다.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곤욕을 당하므로 괴로울 때에 두려움 속에서 또한 억울함 속에서 입을 열어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은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이사야 30장 15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 괴로울 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헨리 나우웬이 그의 책 “기도의 삶”에서 한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침묵으로 이끌고 침묵은 말씀으로 이끈다. 말씀은 침묵 안에서 태어나고 침묵은 말씀에 대한 가장 깊은 반응이다.” “침묵은 말씀에 대한 가장 깊은 반응”이라는 말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음성들이 들릴 것이고 또한 많은 말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막1:11). 헨리 나우웬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침묵 속에 들어가 세상의 시끄럽고 귀찮은 잡다한 음성을 따돌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작고 친밀한 음성을 가려듣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과감히 고독을 끌어안고 침묵을 벗 삼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알게 된다.” 우리는 과감히 고독을 끌어안고 침묵을 벗 삼아야 합니다.

## **둘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8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미 묵상한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4절)고 생각(착각)하였지만 오늘 본문 8절에 와서는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땅히 형벌 받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성경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괴로울 때 바른 생각, 즉 성경적 생각을 하지 못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침묵 속에서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논리적 생각 (이성)이 앞서기보다 감정이 앞서서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정에 이끌려 생각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 **마지막 셋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우리는 괴로울 때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으며 또한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괴로울 때 범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괴로울 때 그분의 입에 꾀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괴로울 때에 입술로 죄를 범치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포도 행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 언행으로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실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어느 면으로나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가능한 예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행으로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욥이 가능했기에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과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1:22),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학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2:10). 오히려 욥은 괴로울 때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1:20).

그러므로 우리도 괴로울 때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께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괴로운 환경에서 감정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괴로운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괴로운 환경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



## 괴로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이사야 53장 7절).**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속이 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무척이나 힘들어 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할지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어쩔 때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를 피하고 싶은 충동까지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그가 어느 누구보다 제일 힘들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기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언제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실지, 언제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실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교회에서 운동하는 장소로 가다가 차 안에서 복음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다가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운동하는 곳에 도착하여 운동을 하다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사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임스야, 너의 무거운 짐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라. 왜 너는 지금 주님께 그 짐을 맡기지 못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제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평강이 없고 계속해서 무겁고 힘들고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에 주일 영어 설교를 준비하려고 영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구절의 문맥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릴 때에 10절 후반절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will himself restore you and make you strong, firm and steadfast”[(현대인의 성경)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제가 사랑하는 그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은 잠깐 겪는 것(suffer a little while)이라는 것과 그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회복(restore him)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그를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신 후 굳세게 하시고(make him strong) 강하게 하시며(make him firm)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make him steadfast)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때 저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전에 주일에 설교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 이제는 살리라”(살전3:8하). 그 때서부터 저는 좀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일 영어 예배 때 주신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1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좀 더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제 마음에 무거움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눅23:9).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침묵을 하셨다면 우리도 괴로울 때 침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괴로울 때 침묵하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께까지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우리는 그 충동을 극복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사30:15). 그리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성취하시고자 그리하셨고 둘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는 말씀을 다시금 들으시고자 침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사53:5)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생각합니다(빌2:8,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습니다(사53:5).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입을 열게 되면 입술로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9절). 우리는 사람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욘1:22).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사30:15). 우리는 괴로움과 힘들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떠한 괴로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되 우리는 우리의 괴로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울 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민수기 11장 11, 14-15절).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버티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지치고 마음이 괴롭지 않나요?

제가 2000년 초반에 한국에 가서 살면서 그 때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 바로 ‘버티기’였습니다. 그 때 저는 사역 가운데 만난 몇몇 청년들은 자신들의 힘든 삶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서 자신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버틴다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견뎌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은 그 청년들의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저는 여러 청년들이 속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버티며 묵묵히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때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언제까지 그들이 견뎌낼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1, 14-15절을 보면 우리는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심히 중하여 괴로움 가운데서 즉시 자신을 죽여 더 이상 자신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즉시 죽여 달라고까지 기도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즉시 죽여 달라고까지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심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11절). 더 이상 모세는 그들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12절). 더 이상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유모가 젖 먹는 아기를 품듯 품고 주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12절).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므로 자신들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4절).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 있었을 때에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5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6-9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습니다(10절). 그 우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 괴로워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섞여 사는 외국인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거부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말입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모세는 자기 혼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14절) 더 이상 그는 자신이 고난당함을 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15,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 한 자 70명을 모아 하나님께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함께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 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홀로 지지 않고 그 70명과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1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히 중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왕상19:4).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하여 승리한 후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2절)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3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10, 14절).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비록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 이 두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그들을 성길 때에 책임이 너무 무겁게 여겨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괴로움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즉, 극심한 외로움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라 많다 한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는 낙심이 심화되어 외로움과 탈진 속에서 절망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비록 교회 지도자에게는 큰 위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그 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회란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안해하고 낙심한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더 이상 홀로 질 수 없음을 아시고 그에게 돕는 자들, 또는 협력자들을 세워주시던지 또는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 지도자를 돕게 하시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계속해서 성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 지도자에게겐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외국인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아 불평하면서 구했던 고기를 그들에게 주워 먹게 하시되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8-20절을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가운데 원했던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특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18절),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20절)라고 말하므로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였는데도(20절)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18절)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기 대신 진노하셔서(10절)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는 원망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일까요?(참고: 출16:7-9, 12) 어쩌면 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모세에게 불평하지 못하게 하므로 모세의 괴로움을 덜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출애굽기 16장 12절 하반절에서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는 원망의 소리까지 들어 응답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만일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비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등을 감사,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 속에서 거듭 교회 지도자에게 울면서 불평을 쏟아내면 그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나아가서, 만일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제가 더 잘 먹고 더 좋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리 울부짖는다면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일 그가 모세처럼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자녀들입니까? 제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쩌서 저에게 유모가 젖 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울며

불평 속에서 부르짖는 교회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실까요?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면서 울며 부르짖는 간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은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교회 지도자에게 불평하지 못하게 하시사 그의 괴로움과 그의 중한 책임을 덜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 지도자에게겐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사 그들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되(18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20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인간의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광야에서 보행자 60만 명을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워 먹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2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자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룻길 떨어진 지역까지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약 1미터 높이로 날아다니게 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도록 하셨습니다(31-32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마16:18) 담임 목사인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때 그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16:18)라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진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케 하시고 기다리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 교회에게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 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가 생각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힘조차 전혀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홀로지게하지 마시고 함께 지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불평스러운 기도조차도 들어주시사 응답해 주시되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탐욕의 죄를 들춰내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해주시사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이 막중한 저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 온 식구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사 주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시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견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 졌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요나 2장1-2절).**

우리 사람들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먹고 마시며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앞으로 나아질꺼야’라고 기대하면서 현재의 역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언젠가는 나도 성공할 수 있을꺼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며 현실의 당면한 상황과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견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죽으면 우리는 비록 살아 숨 쉬고 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망을 살려 놓으려고 발버둥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려두려고 노력했던 소망마저도 끊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던 요나가 결국 이방인 사공들에 의해 바다에 던진바 되어(욘1:15) 큰 물고기 뱃속에서(17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 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나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란 단어(히브리 원어: “이트팔렐”)는 감사 기도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삼상 2:1; 삼하 7:27). 어떻게 요나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2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가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내리신 대풍(1:4)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배를 함께 타고 있었던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에게도 피해를 주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이방인들 앞에서도 자백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행동을 보이게 하시사 이방인 사공들로 하여금 요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게 하셨습니다(2:3). 이제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며 회개케 하신 은총을 생각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졌지만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 졌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믿던 모든 것 다 끊어 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므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요나가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고난 가운데서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와 닮은 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1:3).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내리신 대풍으로 인하여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과연 요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2:9). 그는 자기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야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9절).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인데, 아직 그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는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의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요나와 달리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10절).

우리는 우리가 믿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참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져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 내 주실 것입니다. 승리!

## 조울증에 걸린 엘리야 선지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열왕기상 19장 3-4절).

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분 중에 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분이 좋을 때는 사시는 아파트 이웃들에게 1년 넘도록 매우 잘해주셔서 그 이웃 세 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셨다가 우울증 상태일 때에는 기분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 이웃 분들을 미워하시면서 그들과 크게 싸우시고 하셔서 결국 교회로 데리고 오신 그 세 분들도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시던 중 수년 전 1월 첫째 주일 예배 후에 그 분이 자살 시도를 하신 것인지 해서 교회 장로님과 제 아내가 급히 그 분이 사시는 아파트로 간접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분은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실려 가시고 결국 수술 후 양로원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분의 아파트에 있었던 수첩들을 넘겨받아 거기에 있는 한국 전화번호들까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분의 식구나 친척을 한명도 연락이 안됐습니다(그 전화번호들은 다 오래되어서 끊겨진 전화번호였음). 저는 아직도 그 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전보다 더 많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우울증에 관한 책들도 사서 읽고 인터넷 기사들도 정신질환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이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부족하나마 조금씩 피부 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신질환은 큰 위험성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조울증이 우울증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과 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보았기에 그 말의 동의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울증은 기분, 기운, 생각, 행동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대개 조증 상태와 우울증 상태의 두 가지 "기분 상태"가 존재합니다. 조울증 상태일 때에는 기운이 넘치고 매우 활동적이 됩니다. 반면 우울증 상태일 때에는 매우 슬프고, 절망적이며, 만사가 귀찮습니다”(인터넷). “기분, 기운, 생각, 행동이 극단적으로 변화는” 모습을 저희 교회 나오시던 분을 통해서 엿본 저로서는 그 극단적인 변화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읽으면서 그 두 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18:1)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2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18절)고 말한 반면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부인인 왕후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19:2)고 말하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습니다(3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저리도 극과 극일까요? 꼭 조울증 걸린 사람 같지 않나요? 어떻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18:20, 22)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36-37절)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핏”는(38절) 것을 목격한 후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도록 한(40절) 엘리야 선지자가 왕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네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19:2, 현대인의 성경)고 말하니까 두려워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갈 수가 있나요(3절)? 혹시 이세벨 왕후가 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18:4, 13)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서 도망간 이유는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의 선지자-킬러(killer)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녀가 죽였기에 그녀가 죽일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3절)는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것일까요?(4, 13절) 분명히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한 두 명만 죽인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바댜가 100명이나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준 것과

엘리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다(19:10, 14, 참고: 18:22)고 말한 것을 보면 이세벨 왕후가 죽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많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기의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자기 남편인 아합 왕에게 전해 듣고(1절) 그 죽임당한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아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으니 엘리아 선지자의 입장에선 충분히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3절). 그런데 엘리아 선지자는 도망가는데서 끝나지 않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4절). 아니, 어떻게 갈멜산에서 모인 모든 백성에게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18:21,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던 엘리아 선지자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19:4)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엘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극과 극이었을까요?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4절하, 현대인의 성경). 왜 그는 자기 조상들과 비교를 했을까요? 왜 그는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일까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한 왕후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이 그리도 한심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합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오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18:12)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엘리아 선지자가 왜 자기 조상들은 신경을 쓴 것일까요?(19:4) 그 정도로 그는 여러모로 연약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아 선지자는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하면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5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했을 때(5절) 엘리아 선지자는 일어나 자기 머리맡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운 것(6절)과 그렇게 다시 누운 엘리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7절)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탈진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아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17:1)고 말한 후 그를 피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고(2-3절) 그 시내가 말랐을

때에는(7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식구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었습니다(15절). 한 마디로, 엘리야 선지자가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적어도 3년 동안(18:1) 자기를 찾는 악한 아합 왕으로부터 피신하며 도망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충분히 육체적으로 탈진하다시피 지쳐있을 수밖에 없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열왕기상 19장 1-7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를 겪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터넷 설교문을 보니까 영적 침체에 대해 이러한 글이 적혀 있어 나눕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영적 침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생하면 치료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장기적인 육체의 질병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우울한 기질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와 죄들이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거창한 죄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죄들이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거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깊어지면 다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불안하며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고, 영적 상태가 메마르게 됩니다”(인터넷).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처럼 다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나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머지 죽이려고 합니다”(현대인의 성경, 참고: 14절). 또한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처럼 그의 영혼이 불안하며 고통 속에 빠져 신앙생활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을 상실하고 그의 영적 상태가 메마르게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영적 침체와 마치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극과 극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까지 바랐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셨는지에 더 궁금해졌습니다. 더 궁금해진 이유 중 하나는 약 10년 전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에 가서는 암이 퍼져서 소천하신 사랑하는 고 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난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설교 제목입니다. 아니 어쩌면 잊을 수 없는 설교 제목이라 말해야 더 적합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에도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계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장례식을 치룬지 얼마 되지 않아 꿈속에서 환한 미소로 저를 품어주셨을 때 영영 울었던 그 꿈을 다시 생각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저는 지금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보다 그들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텐데, 어느 누구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텐데 … 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제일 잘 아시고 그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사 소망을 주시며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와 마치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는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는지 3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천사로 하여금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후 누워 자고 있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두 번이나 말입니다(19:5, 7).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침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신이 지쳐 누워 자는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루만짐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누워 자고 있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깨워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5, 7절).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공급해주셨습니다(6절).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두 번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므로 힘을 얻었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침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육체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가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어느 자매에게 물었더니 우울증이 걸렸을 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에게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운동을 하기 위해선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잠을 자고 있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운 후 먹고 마시게 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침체나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마시며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여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해야 합니다.

###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8절, 현대인의 성경)는 그 곳이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 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가 그 굴속에 있었을 때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9, 13절). 그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10, 14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신 후(11절)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12절). 저는 이것이 광양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12절, 현대인의 성경)를 들려주신 것은 광야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호세아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심에 있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서 그들을 “말로 위로”하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부드러운 말로 잘 타이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왕상19:10, 14)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되(12절)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남겨 두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영적 침체나 정신 질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다시 생각되었습니다. 심신이 차치고 심지어 절망적일 때에라도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붙잡힌바 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건지심, 치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성(restore)시키실 것이며 부흥(revive)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극에서 극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사자는 스스로 컨트롤 안 되는 그 감정의 기복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식어져서 냉랭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신앙의 기복으로 말미암아 괴로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담대히 아합 왕에게 나타나 책망까지 하였는데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하면서도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19장에 와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리도 다를 수 있을까요? 마치 그는 영적 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시고 또한 음식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온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의 영혼을 소성시켰으면 부흥케 하였습니다. 동일한 소성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길 기원합니다.

##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대 하니”(사사기 6장 12-13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충격과 상처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성장하여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남자/여자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및 결혼 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충격과 상처는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충격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기드온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그리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7년 동안(1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므로 말미암아(13절) 궁핍함이 심했기 때문입니다(6절). 궁핍함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농작물을 해치며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너무 잔인한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았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궁핍함이 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6-7절)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8-10절).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12절). 그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진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저는 그 2 개의 질문이 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13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였을 때(12절)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너무 잔인한 미디안 사람들(2절, 현대인의 성경)로 인하여 7년 동안이나(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6절). 이 질문을 달리 말한다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이나 지배를 받으면서(1절, 현대인의 성경) 심히 궁핍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6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13절).

저는 이 기드온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기드온의 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기드온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심한 궁핍함 가운데서 허덕여야 하는지 충분히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고통과 심한 궁핍함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리도 고통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허덕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심과 의문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심한 궁핍함 등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의 결과만 알고 있기에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적어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사랑의 징벌을 받는 죄를 범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15절) 기드온을 “큰 용사”(12절)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14절)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계시사(12절) 그를 사사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는(14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새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사 저를 능하게 하시고 저를 충성되이 여겨 저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딤후1:12)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 아들/딸로 대우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히12:6, 7, 1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10절). 그 결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삿6:13).

**마지막 둘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13절 중반절, 현대인의 성경).**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8-9절)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13절)라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이적”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사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나타내신 모든 이적들을 가리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시다면 과거에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나타내신 그 모든 이적들이 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는 없냐는 반문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드온은 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이나 지배를 받으면서(1절, 현대인의 성경) 심히 궁핍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6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13절).

저는 이 기드온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기드온의 밀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들이셨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왜 지금은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는지, 그 결과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며 심한 궁핍함 가운데서 허덕여야 하는지 충분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기드온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심한 궁핍함 가운데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시사 건져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고통과 극심한 궁핍함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요 또한 기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기대대로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란 기적 중에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우리가 구원(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 기적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원(건짐)을 받은 기적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수적인 기적들을 간구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 받는 기적을 구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고통의 문제에서 기적적인 구원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건짐을 기도하며 기대하기 이전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치 않은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죄의 결과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먼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겸손히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며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심한 고통과 궁핍함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사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인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울부짖어도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시22:1-2,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소리 지르셨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막15:34).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시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forsaken)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함(forgiveness)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욘2:9).

##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와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 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사사기 6장 12-13절, 현대인의 성경).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한 마디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여인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그 정도로 힘든 줄 모르고 위로한답시고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다 관찰을꺼야’라고 말한다면 그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녀의 힘든 마음을 체휼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남편이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한 후 자신의 입을 쉽게 입을 열어 그녀에게 한 마디를 가볍게 뱉는다면 그녀의 힘든 마음은 더 힘들어 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그녀에게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그녀는 충분히 힘들고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 모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기드온이 자기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사자(12절)에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왜 그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리 대답을 했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 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면 왜 자신들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 자신들의 모든 농작물과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기드온의 입장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면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한 궁핍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6절).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6절). 그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7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8-10절).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한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13절)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지심을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10절, 현대인의 성경)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처럼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닐까요?(13절)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약속의 땅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1절)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13절)라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또

질문했습니다(13절). 이 질문을 보면 기드온은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1절).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죄의 결과로 겪고 있었던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심한 궁핍함(6절)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을 때처럼 “그 모든 이적[“지금 그런 기적”(현대인의 성경)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13절).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13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 이적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과 역경과 심한 궁핍함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2-6절). 과연 이 기드온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거듭 거듭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 이 죄악 된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거듭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또 다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그리스도인인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사 우리로 하여금 심한 궁핍함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궁핍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 거듭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풍부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거듭 범하고 있는 죄를 계속해서 죄로 여기지 않고 거듭 하나님께 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의 결과로 궁핍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 마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궁핍함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한 버리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한 궁핍함을 겪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적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의 손에 넘겨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얻어(롬4:25) 이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롬8:39).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으십니다(신31:6, 수1:5, 시94:14, 히13:5).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 모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힘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힘든 일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케 하시사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의 결과로 이 모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모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힘 있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모든 힘들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 “위로자가 없도다”

## [전도서 4장 1-3절]

언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기도 모임을 갖은 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일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수면제 약인지 많이 드시고 자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날 주일 오후 제 아내와 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및 한 자매가 그 집사님을 집으로 찾아가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제 아내가 그 집사님을 아파트에 가서 찾아보려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은 앰بول런스에 실려 집 근처 병원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머리 수술을 하시고 양로원으로 퇴원을 해서 젊으신 나에게 양로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일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대학생이 선교지에 나아갔다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어사역에서 그 형제의 어머니와 봉사하면서 그 형제가 중학교 때 영어 예배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선교지에 나아갔다가 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람 속에서 어떻게 그 형제의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형제의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친구들 및 교회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곤곤한 일이, 죄악 된 일이,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저런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란 단어를 생각하면 욥기 16장 2절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사도행전 4장 16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생각이 납니다. 욥기 16장 2절 말씀은 욥은 자기를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을 가리켜 “번뇌게 하는 안위자”(sorry comforters)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6절에 나오는 바나바를 가리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권위자”(Son of Encouragement)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 중에 있는 옴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번뇌케 하는 번뇌케 하는 위로자였지만 초대 교회에 나오는 바나바 선생은 참된 위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에 불타는 위로자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위에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때가 참 많습니다.

로버트 스트랜드 목사님이 쓰신 “위로의 영성”이란 책을 보면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101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 머리말을 헨리 나우웬 신부님이 쓰셨는데 거기서 그는 “위로”라는 말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위로한다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 주는 것을 가리켜 나우웬은 “돌봄”(care of soul)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울어 주는 것, 같이 고생하는 것, 같이 느껴 주는 것, 돌봄은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웬 신부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 슬픔은 우리들을 춤추게 합니다. 또 우리 춤은 우리 슬픔을 위한 공간을 창조해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흘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어릿광대의 얼굴이 슬퍼 보이기도 하고 기뻐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슬픔과 춤, 비통함과 웃음, 애통함과 기쁨은 모든 한 곳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렇듯 슬퍼하는 것과 춤추는 것이 서로 맞닿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슬퍼하는 것과 춤추는 것이 서로 맞닿는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솔로몬 왕도 자기가 본 것을 전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히려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목격한 것은 바로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는 학대 받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학대 받는 사람들의 흘리는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학대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은 학대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결코 학대 받으면서 살바에 아예 죽는게 낫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솔로몬 왕은 학대 받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더 낫다고 자살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살을 권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즘 인터넷을 보면 자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러한 자살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만나 함께 자살하는 경우도 한국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과거에도 접했습니다.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면서 삶에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살 충동 속에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스스로 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2절은 자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아 지혜자 솔로몬 왕도 학대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지 죽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앗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결코 자살을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권세 잡은 자들의 학대로 인하여 학대 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렇게 학대 받는 사람들의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자체를 죽음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의한 압제를 받는 고통스러운 생활이 죽음만 못하다는 것뿐입니다(박운선). 과연 죽음만 못한 고통스러운 생활 하면 어떤 생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탈북자들 생각이 났습니다. *Wall Street Journal*이 2006년 5월 1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소개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가명인 한나라는 여인(36세)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평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어려운 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옷감 장사로 나섰는데 옷감을 얻기 위해 국경마을에 갔다 저녁 식사 도중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이미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중국 사람에게 팔여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너 같은 북한사람을 죽이는 것은 닭을 죽이는 것보다 쉽다”는 폭언과 함께 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를 당하면서 한때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면서 당시에는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런 탈북자들의 증언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접하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읽혀지더라.’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3절에의 말씀이 얼마나 더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겠습니까? 죽은 자나 산자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탈북자들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도 않고 또한 죽는 것을 원할 만큼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온 삶을 뒤돌아 볼 때 참 죽지 못해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 쉬고 산다는 자체가 죽음만 못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눈물 속에서 거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할 만큼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고통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롭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우리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은 주위에 진정으로 나의 힘듦과 괴로움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더욱더 괴로운 사실은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진정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행은 끝이 없어 보일 때, 학대와 압제의 행위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마지막 끈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한 3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는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 받은 것은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할 때 시편 기자처럼 자기 영혼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 한 예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시편 42편 5, 11절과 43편 5절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낙심이 될 때에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제 자신에 선포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제임스야, 너는 왜 낙망하며 왜 불안해 하는냐. 제임스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저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자 애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낙망하며 절망 될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 보세요. 꼭 시편 말씀이 아니래도 예를 들어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 **둘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분의 고통을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될 때에야 참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망될 때 요나서 2장 4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찌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비록 주님의 종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의 폭풍을 맞아 바다 깊은 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낙망하며 절망될 때 이 요나서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낙망과 절망을 주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셋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절망이란 예수님을 소망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저런 일들로 절망하게 될 때 그 절망이란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철저히 이 세상에 실망하며 절망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좀 철저히 실망하며 절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절망감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좀처럼 갈망하며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의 3절 가사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제가 이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 때에 그 때야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찬송가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1절과 5절].

소망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의 위로도 여러분이 거절할 때에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기원합니다. 슬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서로 맞닿는 그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 즉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 목상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한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마음의 눈물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하는 아드님의 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자기 가정보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더 생각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위로 받기보다 위로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I see Christ in you ...

# ‘주님,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

## [시편 119편 81-88절]

여러분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나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고통과 역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인가요?”(How long?)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였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다”(82절)[(현대인의 성경) “내가 ‘주는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하고 주의 약속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란 제목 아래 ‘인내의 한계’(Limitation of Endurance)와 ‘인내의 도전’(Challenge of Endurance)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내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81-82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다”[(현대인의 성경)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으나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는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피곤했습니다. 그는 지치고 피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84절). 그 시편 기자를

핍박하였던 그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85절). 그리고 그들은 이유 없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되(86절) 그들은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웅덩이(함정)를 팅습니다(85절). 즉, 그들은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기자를 거의 멸하였습니다(87절). 즉, 그들은 시편 기자를 거의 죽이다시피 했습니다(87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였고(81절)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바랬지만(82절)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곤하고(지치고)(81절) 또한 피곤(피로)했던 것입니다(82절).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때에 우리는 영육 간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참으로 위험한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리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 참고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지친 상태에서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교만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시42:10)라고 계속해서 비방 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낙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교만한 원수들을 벌하실까?’(84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려도 기도 응답은 없어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라고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내의 도전입니다.

### **둘째로, 인내의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을 때(81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위로는 더디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우리의 눈이 피로해졌을 때(82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83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때(84-86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거의 죽이다시피 했을 때(87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인내의 도전을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쳐도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81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주님의 계명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86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82절, 현대인의 성경) 피곤해져도 그래도 우리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83절). 교만한 우리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를 거의 죽이다시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87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다시 살아나게(소성케) 될 것입니다(88절). 그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88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오래 참으심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든 시간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사용됩니다(박윤선).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위와 도움이 더디어 보이므로 ‘주님, 언제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주님, 언제나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 저를 건져(구원해)주실 것입니까?’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계명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인내의 한계를 느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 위로 받기를 거부하는 애통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창세기 37장 34-35절).**

저희 교회에는 여섯 자녀들 중 세 자녀들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신 팔십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신 이 할머니는 여섯 자녀들 중 세 자녀들도 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보낸 아드님은 56세 나이로 몇 년 전에 주무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때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통곡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한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원망스러워요’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통곡하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보아도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각자의 아픔과 고통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등등 위로하려고 노력들은 하겠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34-35절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가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창37:3)이 죽은 줄 알고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었을 때 요셉 외에 다른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었지만 야곱은 그들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 소식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었을 때 다른 자녀들의 위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he refused to be comforted”(NASB)].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야곱은 자녀들의 위로를 거부했겠습니까.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애통이 있습니다. 그 애통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이별의 고통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겨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므로 그 큰 슬픔과 고통을 견뎌 이겨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엔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 받기보다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애통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사사기 10장 16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곤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하되 그들의 곤고는 심했습니다(9절).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한 곤고를 당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시므로 인하여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기 때문입니다(7-8절). 학대하되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습니다(8절).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습니다(9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6절). 그러므로 심한 곤고함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10절).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10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상기시켜 주시면서(11-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택한 이방인의 신들에게 결코 부르짖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그 이방 신들 중에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 학대를 하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블레셋 사람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15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16절). 이방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곤고가 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 여기서 “근심하시니라”란 말의 히브리어는 견디지 못하심(*impatient*)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를 보시고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He could bear Israel's misery no longer*).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거듭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화 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롬2:4).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사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며 우상화 했던 세상 것들로 우리를 징계하시사 더 이상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화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부르짖게 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곤고함을 보시고 더 이상 참으시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곤고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15:34)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면 서도 참고 견디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곤고함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곤고함을 인하여 견디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 건디지 못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곤고함 속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 눈물을 흘리며 원망으로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민수기 11장 12, 20절).

젖 먹는 아기가 왜 울까요? 저는 아내와 함께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이 아기 때 왜 울었는지 그 이유가 한 두 가지임을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란 첫째로 아기가 기저귀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았을 때 갈아달라고 운다는 것과 둘째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할 때에 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 외에도 아기가 피곤하면 재워달라고 울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가 불만족스러우면 아기는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기들만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뭔가가 불만족스러우면 불평을 하다가 그 불만족함이 불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정도로 되어 버리면 울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너무 배고프면 서러워서라도 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하며 사는 것이 힘들어도 서글퍼서 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2절과 2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 먹는 아이”(아기)와 같다고 말하면서(12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만 울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4절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습니다(10절).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울었습니다(13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4, 13, 18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밤에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계셨던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6절, 현대인의 성경) 모세를 향하여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불평의 소리를 냈습니다(13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계셨던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의 소리를 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 그들처럼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울면서까지 불평,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 애굽을 생각하며(5절)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고 말했습니다(18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히 크게 진노하셨습니다(10절). 물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10절).

부모가 아기를 기를 때 그 아기가 배고프다고 엄마가 젖을 그 아기의 입에 물려줄 때까지 계속해서 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젖 먹는 아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울고 또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인(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모세의 입장에서 괴로운 일입니까(11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11절). 모세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 자기 혼자서는 원망하며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15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고 말씀하신 후(16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로 하여금 혼자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울며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8절).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이 아니라(19절) 자그마치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말입니다(19-20절, 현대인의 성경).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는 원망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일까요?(참고: 출16:7-9,

12) 그 이유를 출애굽기 16장 1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는 원망의 소리까지 들어 응답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게 하시려고 하신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민수기 11장 2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광야에서 보행자 60만 명을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워 먹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부족할 수밖에 없는(22절, 현대인의 성경)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2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자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룻길 떨어진 지역까지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약 1미터 높이로 날아다니게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도록 하셨습니다(31-32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33절). 그 결과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매장되었습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 곳 이름을 “기브룻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행자 6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탐심을 품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족 속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원망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시사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내는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을 내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탐욕은 우리의 무덤을 파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풍부할 때가 궁핍할 때나 자족해야 합니다(빌4:11-12).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에 욕심을 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미 받은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엡1:3) 깨달아가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 내 두려움을 아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만일 네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지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사사기 7장 10-11절 상반절).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마치 배를 타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배의 사공 되신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노를 저어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새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대하지 않았던 큰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은 잔잔한 바다 물결인데 말입니다. 그 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큰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그 큰 풍랑과 싸워 이겨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보곤 합니다(욘1:13).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는 우리를 향하여 점점 더 흥흥해지는 것을 봅니다(13절). 그 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14절). 부르짖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간구합니다(14절). 그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접한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므로(15절)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큰 풍랑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십니다(16절).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0-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 300명이 있는 골짜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8절, 현대인의



성경) 미디안군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고 말씀하신 후(9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큰 위기의 상황이란 기드온과 그의 군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적군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습니다(12절). 그 연합군의 숫자는 135,00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8:10). 이스라엘 군 300명과 적군 135,000명 정도와의 전쟁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전쟁은 해보았자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300명이 135,000명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군이 승리할 수 없는, 아니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 300명의 입장에서 현 위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처음엔 적군과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군의 숫자가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명하셔서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7:3). 그 때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가고 남은 자 10,000명 중 기드온의 300명 군사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 까요? 적군이 약 135,000명 정도나 되는데 32,000명에서 22,000명이나 돌려보낸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했었을 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드온에게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적군 135,000명 정도에 비해 이스라엘군 10,000명이 “아직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턱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군인 숫자인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적군과 싸우러 갈 사람 300명과 가지 않을 사람 9,700명을 구별하셔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물을 훔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아니, 어떻게 또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나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또 남은 10,000명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300명으로 적군 135,000명과 싸워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적용해 볼 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더 많고 많아야 주님의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쩌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교인 숫자가 너무 많다’(2절), ‘돌려보내라’(3절), ‘돌려보내라’(7절)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교인

숫자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 줄 알고 교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32,000명)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2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22,000명)는 누구든지 이 곳 길르앗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3절, 현대인의 성경),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7절). 그 결과 이스라엘군은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7절).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기드온에게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군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혼자서 미디안 군을 공격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려워하는 기드온(10절)에게 미디안 군을 공격할 용기를 주시고자 그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적군이 135,000명인데 이스라엘군은 고작 300명이라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만일 네가(적군 진영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10절).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들(적군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기드온은 부라를 데리고 적군이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고(11절) 그리고 거기서 그는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꾼 이야기와 해몽을 듣습니다(13-15절). 그 후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한 후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외쳤습니다(15절). 이젠 그는 미디안 적군을 공격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주님께서 제 두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이 점점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가고 있기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두렵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러한 제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든 생각은,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그 두려운 상황을 제

힘(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접한 그 힘들고 두려운 상황은 마치 나는 군인 숫자가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 적군은 135,000명 정도인데, 그 다음 상황은 내 군인 숫자는 10,000명, 적군은 135,000명, 그러다가 지금 상황은 적군은 변함없이 135,000명인데 내 군인은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두렵고 또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제가 의지하는 제 주위의 사람들을 줄이고 또 줄이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점점 더 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제 능력과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한 후 제 스스로 자랑할까봐서, 제가 교만해질까봐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세 번째 생각입니다. 주님은 제가 교만해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사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한 가지 더 하게 된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공격한 용기를 주셨을까 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변하여 용기 있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든 생각은 바로 “확신”(conviction)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하 부라와 함께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인 꿈과 해몽을 듣게 하시므로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이 승리의 확신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얼마나 용기 있게 적군을 공격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와 300명 군사는 아무 무기도 없이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빈 향아리(그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음)를 들고(16절)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300명이 135,000명을 무기도 없이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300명의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눠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100명의 병력이 미디안군의 진지 외곽에 도착해서(그 때는 적군이 막 보초 교대를 끝낸 자정 무렵이었음) 갑자기 그들이 나팔을 불며 들고 있던 향아리를 깨뜨렸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다른 두 부대도 그들을 따라 일제히 왼손에 든 향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그 진지를 포위하자 적군은 놀라 아우성치며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21절, 현대인의 성경).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였고(22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에 가서는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135,000명 정도나 되는 적군을 무찔러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시므로 그들은 칼로 서로 치게 하시사 기드온과 300명 군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풍파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큰 어려움과 큰 역경으로 인해 충분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큰 어려움과 큰 역경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변하여 용기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용기로 우리가 접한 큰 역경과 어려움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부딪힙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또한 극복케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사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 [시편 55편 말씀]

세상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점진적으로 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근심, 걱정, 슬픔, 고통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왜지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답을 이용규 목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 중에는 ‘과거의 짐 보따리’도 있고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상처와 아픔, 괴로움과 근심, 걱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 17-1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를 향한 그의 보배로운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권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기 때문입니다(마7:34).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 첫째로, 다윗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1) 다윗의 짐은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기서 “근심”이란 히브리 단어는 “수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근심이 “수플이나 가시덤불처럼 복잡하고 착란한 심사 때문에 생기는 고로, 이 글자가 사용된 듯하다 라고 말했습니다(박윤선). 다윗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근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심이 지속되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심은 건강에 지장을 주어 생명을 단축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행복의 척도는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심 없이 사는 가난한 삶이 근심에 파묻혀 사는 부자의 삶보다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화로 널리 알려진 이솝도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인터넷).

### (2) 다윗의 짐은 ‘심한 마음 고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팠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편히 쉬길 원했습니다(6절). 한마디로, 다윗은 짐이 너무 무거워 현재 상황을 피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고 또한 죄악과 잔해함, 악독과 압박, 궤사를

보므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10-11절). 이 외에도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던 이유는 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12-13절을 보십시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다윗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다니면서 재미롭게 의논하며 교제하였던(14절)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한 친구는 자기와 화목한 자인 다윗을 치고 그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20절). 그 친한 친구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뾰힌 칼이었습니다(21절).

### **둘째로, 어떻게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릴 수 있는가?**

다윗은 그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 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 다윗은 자기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기의 근심이나 자기가 처한 악하고 죄악 된 상황으로 인하여 심히 아파하였던 마음을 기도로 다 맡겨 버렸습니다. 특히 그는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아픈 마음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 버렸습니다. 왜 다윗은 주님께 자기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다 맡겨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16-17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근심과 심한 고생, 아픔을 다 주님께 간구로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오직 주님만이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무거운 짐, 근심과 심한 마음의 고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23절 하반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마지막 셋째로,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릴 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 가지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다윗은 현재의 위협과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난에서 건지신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면 자기를 붙들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55:22).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55편 18절을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 (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자기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사(19절)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23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합니다. 시편 21편 7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 이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363장, “내 모든 시름 무거운 짐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모든 시름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근심에 싸인 날 돌아 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먼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먼 목사를 찾아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에 싸인 저는 무엇을 해야죠?”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호프먼 목사는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는 밝은 얼굴을 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어요.” 성도가 나간 후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호프먼 목사는 펜을 들어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해서 363장이 탄생한 것입니다(인터넷).

저는 이 찬송가를 언젠가 제 아버님이 선교지에서 힘차게 부르시는 찬양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아버님은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닥친 날 새벽 기도회 때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셨습니다. 그 날 하나님은 아버님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저 또한 무사히 한국으로 나아와 나중에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심한 마음고생으로 허덕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기도로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십시오.

# 낙심치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엡2:8)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시34:14; 롬13:3, 벵전 3:11). 선을 행하되 우리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시37:3, 27).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요삼1:11).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까?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선행을 받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답시고 섬기고 베풀며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무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해 함의 원인은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적인 선행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기대한 만큼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섭섭해 하고 또한 낙심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선행을 받는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비판의 목소리와 정죄한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사람에게는 선을 계속 베풀기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선행을 받는 상대방에게 변화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열심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받는 그 상대방의 삶에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거름과 물을 주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데 아무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낙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농부로 선한 씨앗을 심어서 기도의 눈물과 말씀의 거름을 부지런히 주려고 애쓰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커녕 죄악 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 자신”이 선을 행하다가 제일 낙심케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던 말든,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비판을 하던 정죄를 하던 그리고 그 상대방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 보이던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시34:8) 무조건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그리고 충분히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전15:58).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신명기 7장 17-19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어려움과 역경을 접할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기에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지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민13:32; 14:36) 방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14:1).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고 힘이 센(신7:1) 강대한 나라들로서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9:1-2).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지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7:17).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8-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을 건져 인도하심에 있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 21절). 그 이유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21절).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접한 큰 어려움과 역경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삶 속에 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내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한 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건져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4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지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7:17)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4절).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사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3절).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참 떡이시요(요6:32)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35절)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삼상7:12)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시121).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마1:23)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출34:9).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을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7절). 그들은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을 격노케 했습니다(8절).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므로(12절) 하나님을 격노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23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는니라”(24절).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격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7절).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지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격노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격노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므로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7:9).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12절) 그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그들의 은금이 증식되며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13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가 불러 교만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봐 염려하셨습니다(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길 원하셨습니다(11절). 그 이유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19절).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7:6).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은(7절)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신 것입니다(8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3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9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십니다. 이루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를 두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건져주실 수 있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인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십시오.

#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 [마태복음 6장 25-34절]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4장 13-15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여4러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란 제목 아래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눅12:29).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의 필요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32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삶 속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근심(염려)된 일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2-33절에서 말한 것처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장가 간 사람은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란 새찬송가 486장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보다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의 염려 중 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 둘째로,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 (1) 그 첫째 이유는,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생존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실뿐만 아니라 하늘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일상적인 필요들을 안주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내포된 뜻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영생)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롬8:32).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안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안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가 전혀 힘들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 그 둘째 이유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14절)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1절)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2절).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4절).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보배로운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17-18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모르시고 계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음식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옷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3) 그 셋째 이유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생각났습니다. 그 노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길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고 안이숙 사모님이 쓰신 책 “죽으면 죽으리라”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은 1945년 8월 18일 오전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박관준 장로님이란 분과 그의 아들이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 사명이다” 외치면서 일본은 “유황불에 망한다”는 경고장을 던졌을 때 세 명의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그

장로님과 아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나가버린 후 어떤 수위가 뛰르고 있었던 안이숙 사모님에게 ‘당신도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서슴없이 “그렇다”고 말하여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결과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어 6년을 옥고를 치루다가 1945년 8월 18일 오전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에 항복하고 사형 집행 하루 전날인 8월 17일 광복과 함께 안이숙 사모님은 출옥하셨다고 합니다(인터넷).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신 안이숙 사모님을 사형이 예정된 하루 전날 극적으로 건져내신 이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극적인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안 사모님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라고 찬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험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고 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 우리가 내일 사형 당한다 할지라도 고 안이숙 사모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내일 일은 주님께 다 맡겨 버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합니다.

###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 가지 예를 드셨는데 그 첫 번째는 공중의 새이며(26-27절) 두 번째 예는 들의 백합화입니다(28-30절). 첫 번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27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첫 번째 예인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가 우리 사람들처럼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가 우리 사람들처럼 농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대답은 “아니오” 아닙니까? 농사도 못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계시다면 그 새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우리가

“키”라 하면 몸길이를 생각하는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 “생명의 길이”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Swanson). 저는 이 “키”라는 단어를 주로 몸길이로 생각했었는데 “생명의 길이”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염려하므로 육신의 몸길이만 자라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길이도 한 시간이나 하루 더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의 삶을 한 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므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염려하면 우리 건강에 더 해로운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예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들의 백합화기 자라남에 있어서 수고와 길쌈(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조차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옷 입히시고 기르시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아야 합니다(26절). 우리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28절). 우리는 그것들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사43:4).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신다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이 염려될 때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의식주라면 우리는 평생 염려하면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11절)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박윤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구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역대하 32장 8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대하29:2).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이하게 했습니다(5, 15-17절). 그는 모든 더럽고 추악 우상들과 죄악들을 다 없이한 후(31:1)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며(2절)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힘쓰게 했습니다(4절). 한 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습니다(20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했습니다(21절).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32:1) 히스기야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란 바로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범하여 유다를 쳐서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1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불성실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는 충성되어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퇴락한 모든 성을 중수하였고 또한 외성을 쌓았으며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였으며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5절).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한 후 그들을 다 모와 이러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 좃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7-8절). 결코 히스기야는 이러한 말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여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았(꿇었)습니다(3절).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끊어버리면 성 밖에서 유다 백성들을 치고자 모인 앗수르 왕들과 군인들만 와서 많은 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4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도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목마름으로 죽을 수도 있는(11절)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유다 백성들을 도우실 줄을 믿었습니다(8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이 말씀을 선포한 후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요6:1-15과 마16:18).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마16:18)이니 주님께서 도우시사 친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할 때 마치 히스기야와 유다 방백들과 용사들이 의논하여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꿇고자)한 것처럼 우리 승리장로교회 지도자들이 저와 함께 의논하여 용단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히스기야와 유다 방백들과 용사들처럼 용단을 내리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목마를 수도 있을지라도 물 근원들을 끊어야(막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끊을 때에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

#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고린도후서 7장 6절).**

낙심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바라보아도 낙심되는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충분히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낙심될 수가 있고 또한 장로님들로 인하여서도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고 깊으며 지속적인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그 때에는 어느 누구의 위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까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위로도 우리의 영혼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침체를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낙심될 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아빠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만이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낙심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엔 두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 첫째 그룹은,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6절)로서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낙심하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했었을 지도

모릅니다(4절). 특히 그들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몸이 편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했었을 지도 모릅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제 생각엔 그보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더 낙심케 한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종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충분히 낙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2) 둘째 그룹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 또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처럼 “낙심한 자들”(6절)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8절). 당연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다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로 그들의 죄를 사랑으로 책망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근심 중에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심한 자들”은 1차적으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지만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낙심한 자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1)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6절). 위로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하여 바울과 그의 동역자에게 3가지 소식을 듣게 하시므로 위로하셨습니다: (a)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었고 그 근심을 통하여(10절) 그들이 회개함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9절). 누가 그들을 회개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하셨기에(11절)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접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b)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다[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이었는가(12절, 현대인의 성경)]는 소식을 접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13절). (c)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디도가 안심함[새로운 힘(13절,

현대인의 성경)]을 얻으므로 기뻐하였기에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척 기뻐하였습니다(13절).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땀으로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하므로 그들을 향하여 디도의 심정이 더욱 깊어진 것을 알고(15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범사에 신뢰하게 되었으므로 기뻐했습니다(16절). (2)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a)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를 사용해서 근심케 하시고 결국에는 회개케 하시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다고 생각합니다(9절). 즉,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시고(10절)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합당한 열매인 깨끗함을 나타내게 하시므로(11절)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b)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종인 디도를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아주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므로 그들을 향한 디도의 심정(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c)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범사에[“완전히”(현대인의 성경)] 신뢰케 하시므로(16절)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과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저의 경우는 저를 제일 낙심시키는 자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저는 제 자신으로 인하여 실망하며 낙심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낙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 지체들도 저로 인하여 낙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1:3) 온갖 고난을 겪는(4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위로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사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므로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과 그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랑의 소식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자매가 새 힘을 얻고 여러분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가 깊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사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 체휨하는 위로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가운데에는 아프면서 아프다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힘들면서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앓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고 전정 금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고통을 나뉘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 고통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덮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 “질고를 아는 자”(사53:3)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저의 연약함을 체휨하시는 대제사장이란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웃들의 연약함을 체휨하는 위로자로 세워주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후 저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실천으로 옮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시는 체휨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체휨하는 위로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선 나의 연약함을 체휨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도시를 좋아하지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많아 보이는 도시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외로운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광야에서 들춰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외로운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만나러(경험하러) 광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고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들춰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체휼하는 위로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도시에서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 받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도시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다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왕궁에서 밧세바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 또한 풍요로운 도시 한복판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합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 고통을 주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또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들춰내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타적인 삶,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체휼하는 위로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고통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하여, 괴로워하며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고독의 동산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체휼하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귀로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사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세움을 받고 또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체휼하는 위로자로 세움을 받고 싶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말씀으로 제 자신을 비춰보며 들춰지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제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의 본능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실망시키는 것뿐일진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주님의 체휼하는 위로자로  
세워주소서!”

## 말로 위로하라!

“...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하고 앗수르 왕과 그 좃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역대하 32장 6-8절).

언젠가 욥기 1-2장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게 만들었던 구절은 욥기 1장 5절 이였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와 자녀들의 숫자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욥처럼 혹시나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봐 아버지로서 새벽기도회 때마다 자녀를 위하여 회개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을 끌었던 것은 모든 고난의 소식을 들은 후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1장 20절 말씀 이였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자식들까지 다 죽었는데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저는 욥기 1장 22절과 2장 10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욥은 입술로 죄를 범치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그의 친구들이 “칠일 칠야를 그(욥)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다는 2장 13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1주일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도 한 말도 안했다는

사실, 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에 옴이 처해있음을 보았기에 그의 친구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refuse to be comforted”(위로 받기를 거절하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위로 받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도 위로 받을 수 없는 마음,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6-8절 말씀 중 6절 하반절에 히스기야 왕은 ‘우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였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와 “말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을 걸고 2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 **첫째로, 언제 우리는 말로 위로해야 하는 것인가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말로 위로한 때는 바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였습니다(대하32:1). 다시 말하면, 역대하 30-31장에 진술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견고히 이루어진 후에 임한 위기 또는 시련인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말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충성된 종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견고히 이루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종교개혁 완성 후에 이러한 어려운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진정으로 종교개혁이 견고히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라를 들어 일으켜 시험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로의 말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다양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무엇인가 견고히 이루어져가고 있을 때 닥치는 위기나 시련 가운데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하는 위기나 시련은 무엇인가 견고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마지막 둘째로, 어떻게 우리는 말로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7절).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큰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히스기야 왕 자신이 큰 위기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은 큰 위로 혹은 큰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며 걱정, 불안에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참 신앙인 큰 위기 혹은 큰 문제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신앙인인 히스기야 왕에게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는 확신 이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신앙과 확신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역대하 32장 1절에 나와 있는 “충성”(진실)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였기에 참 신앙과 확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충성(진실)은 초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진실은 우리 주님의 진실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진실하심에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의 참 신앙과 확신의 근거는 주님의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싸움을 하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 위기는 기회입니다!

“나의 속한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사도행전 27장 23-25절).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 위기를 접할 때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온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 생각하여 그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원망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위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위기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낙망과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위기의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25절 문맥을 보면 우리는 위기를 만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275명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온 원인은 바로 바울을 이달리야로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1절) 바울의 말보다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11절). 여기서 바울의 말은 “간신히”(7, 8절) 배가 미항이라는 곳까지 이르러(8절) 행선하기가 위태하므로(9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10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행선하였습니다(12절). 그리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과 선주나 선장은 처음엔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자신들이 득의한 줄 알았습니다(13절). 즉,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 선장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해서(14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 가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15절). 이 위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17절) 나중에 가서는 구원의 소망도 다 없어졌습니다(20절). 그 와중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 뿐이리라”고 권했습니다(22절).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권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24절). 즉,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위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전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제 자신의 음성이나 상황에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기가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 고통당하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가 접한 상황으로 하여금 제 마음에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의사를 통하여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아니면 빨리 죽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첫째 아기 주영이의 55일의 삶보다 나으므로 저나 아내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저희 부부는 그 날 아침 병원으로 가서 아기를 빨리 죽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부모님과 형 부부와 여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아기에게 연결된 모든 기계들을 다 끊은 후 아기는 제 품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후 아기를 화장한 후 아기의 뼈 가루를 호수에 뿌리고 나서 육지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My Savior’s Love”(나의 구원자의 사랑)를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린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위기는 이웃을 사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접할 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55일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주영이게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저에게 하루는 아내가 우리가 너무 “self-absorbed”(자기 몰두)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해 줘서 알았습니다. 그 때 저희 넷째 삼촌과 막내 삼촌이 하시던 봉재 공장 사업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저는 제 첫째 아기에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명은 회사가 부도날 상황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했던 저의 불찰이요 미성숙함 때문 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접한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압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타고 있던 배가 파선되어 자기와 더불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37절)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도 오히려 함께 하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22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25절)고 권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25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 부터 들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24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는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안심하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불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누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웃 사랑 계명에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마지막 셋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면했습니다(34절). 그리고 그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했을 때(35절) 다른 사람들도 다 안심하고 떡을 받아먹었습니다(36절).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을 현실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조차도 사용하시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뤄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분명히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은총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사무엘상 23장 22절).**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TV 만화 프로그램은 “Tom & Jerry”(톰과 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세 자녀들(특히 초등학생 막둥이)이 그 만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 만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제리라는 쥐가 자기보다 훨씬 큰 톰이라는 고양이를 이기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톰이 제리를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때마다 영리한 제리는 그 위기를 잘 모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톰으로 하여금 위기를 접하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만화를 생각할 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윗은 제리 같고 골리앗은 톰과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목동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므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삼상 18:5).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 날 후로 다윗을 살인적인 질투로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6-9절).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14-15절). 그 이유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므로 사울의 모든 신하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였고(22, 28절)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30절).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14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기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28-29절).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19:1, 10). 그러므로 그 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사울 왕은 추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22절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가(1-12절) 사울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갔는데(13절)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는 십 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15절). 그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나아와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어 있음을 고하였습니다(19절). 그들이 그리 한 이유는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20절).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그 십 사람들에게 축복한 후(21절)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들은 말을 하면서 그 십 사람들에게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22절). 그런 후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그 십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23절). 저는 여기서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무엇인지를 3 가지로 목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의 지혜를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라고 칭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한 다윗의 지혜를 3 가지로 목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를 추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유대 땅 그일라 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라는 소식을 듣고(1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라고 물었고 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하셨습니다(2절). 그런데 왜 다윗이 두 번째 또 다시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면(4절) 그 이유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지가”(3절).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또 다시 자기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할지를 물었던 이유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분명히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을 것이요 그가 들으면 분명히 그일라로 내려와서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이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5절).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7절). 그래서 사울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한 것입니다(8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출14:3). 그래서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했습니다(6-9절).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입니다. 사울 왕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그일라에 갇혔고 그를 에워싸면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생각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잡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삼상23:14).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일라 주민을 구하신 하나님께서(5절)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계시기에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을 수도, 그러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지혜로 결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되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에 순종할 자세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참고: 행 5:29). 비록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이성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험 부담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여쭙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 이 말씀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1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가(2절) 길 가 양의 우리에 있는 굴에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3절).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3절). 그 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4절).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고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자기(4하-5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6절).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7절). 아니 이것이 어떻게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기회가 있을 때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4,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울 왕의 겹옷 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찢렸습니다(4-5절).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치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면한 위기를 쉽게 모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람이 주는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금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 기회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셋째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는 확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알고(18절) 다윗에게 소리를 높여 울면서(16절) 말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다윗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는데(11절)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아껴 그의 손을 들어 자기를 해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10절) 사울 왕은 다윗에게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말했습니다(17절).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19절)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선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울 왕에게 아무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11절) 사울 왕이 자기 주위에 사람들의 말인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9절)는 말을 듣고 그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는데(11절)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사울 왕을 선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요셉은 자기를 해하려고 한 자기 형들에게 한 말로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시34:8) 오히려 그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입니다(창50:21). 어떻게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 사울 왕을 선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시34:8).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랬기에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학대하였지만 다윗은 그를 선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리했지만(창39:9)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와 사울 왕 사이에 심판하여 주시길 원했습니다(12, 15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자기를 사울 왕에게서 건져 주시길 원했습니다(15절). 또한 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보복하여 주시길 원했습니다(12절).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자기를 해하려고 하였던 사울 왕을 자기 스스로가 복수한답시고 처단하였으면 더 이상 도망 다니면서 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기와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시길 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혜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들고 심지어 위기의식까지 느낄 때이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행동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를 학대하는 자를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학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로서(시34:8)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기에(롬8:28) 우리는 우리를 학대하는 자에게까지도 선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 해하려는 일이야 말로 턱도 없는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마치 톱과 제리와와의 싸움과 같아 보입니다. 마치 고양이 톱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반면에 쥐인 제리와 같은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보면서 행동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울 왕을 선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한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환난은 기회입니다!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사도행전 11장 19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하리라 ...”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과 3절).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원수도 사랑하면서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과 능으로 못하는 것이지만 이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신앙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복음 확산의 역사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케 하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순교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행 1:8).

성령 행전이라고까지 불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란 첫째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8:4). 그 흩어진 사람들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므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많은 귀신들린 자들과 중풍병자들이 치유를 받으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5-8절). 이 소식, 즉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14-15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25절).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여(26절) 그는 순종하여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27절)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므로(35절) 그가 믿음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38절). 그리고 그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 그곳을 떠나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40절).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일어날 그 두 번째 일이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하여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일입니다(행9장). 이 일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4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1-9절), (2)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와의 만남(10-19절상), (3) 바나바와의 만남(26-27절), (4)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28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하여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일어난 세 번째 일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2절)와 그의 집에 모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24절) 베드로의 설교(36-43절)를 들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44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시작하여 26절까지 일어난 일로서 그 네 번째 일은 바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일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통하여 초대 교회 성도님들을 흠으셨고, 그 흠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환난이란 흠어져 복음을 전하는 복음 확장의 기회요, 지도자를 세우는 기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기회요 또한 교회를 세우는 기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사도행전 11장 19-26절을 묵상하면서 환난이란 어떠한 기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환난이란 흠어져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기회요 복음 전파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20절을 보십시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흠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초대 교회 성도들이 흠어지게 되었고 그 흠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흠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뭉쳐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죄를 범하기보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흠어주셔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보다 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영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영역을 넓혀주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환난이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초대 교회 성도들이 흠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되 영역을 넓혀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손이 그 복음 전파자들과 함께 하시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 위기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 위기의 기회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하여 제 두 손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오히려 주님의 오른손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사 다시금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때 저는 참으로 삶의 위기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중 하나란 생각이 듭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받고 있었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임한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셋째로, 환난이란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5-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져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의 영역의 넓힘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외에도 안디옥에서 일어난 수다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24절)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므로 말미암아 안디옥 지역 복음 전파자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 안디옥 복음 사역과 양육 사역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오게 하여 둘이 함께 팀 사역을 1년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25-26절).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고(24절) 안디옥에서 비로써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26절).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해서(혹은 배가 불러서) 팀 사역을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사역과 양육 사역이 바울과 아볼로처럼(고전 3:5-9)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함께 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교만한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초대 교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 성도님들을 흩으사 복음 전파케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안디옥 지역 복음 전파자들과 사울과 함께 팀 사역케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마지막 넷째로, 환난이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져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의 영역의 넓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역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우심을 엿봅니다(마16:18).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엿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가 환난을 맞이하였다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마치 선지자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단하고 우리 각자 집에 빨라야겠습니까?(학 1:4, 9)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라도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부지런히, 신실하게 그리고 말씀 중심과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믿음의 시련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야고보서 1장 2-3절).**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특히 그 시련이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는 낙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절망감까지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약1:3).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4절).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란 찬양 1절 가사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한 예로, 우리가 지혜가 충분하다면 어떠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므로(잠1:7, 9:10) 악을 미워할 것입니다(8:13).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에 “시험”(유혹) 받아 “하나님께 시험(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13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약1:14). 우리는 구약 성경 읊기에 나오는 읊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욥1:22)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2:10). 오히려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 하고 성내기를 더디 하면서 듣기를 속히 할 것입니다(약1:19).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5절)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5절). 간구하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8절).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6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하며 기대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여주시길 기도하며 기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는 것이(출33:15) 시련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므로(사30:15)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욘42:4).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약1:2).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5:10).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욘이란 인물입니다(11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욘1:1)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다. 당하되 그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었고 또한 그의 모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는 큰 시련을 당하였습니다(11-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이 모든 일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21-22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22절, 2:10).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약5:11)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욘42:10). 하나님께서는 욘의 말년에 욘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도 주셨는데 “모든 땅에서 욘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13-15절). 이렇게 주님께서 욘에게 주신 결말을 보면서(약5:11)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참고 견뎌야 합니다(1:12).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됩니다(5:11).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1:12).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12절).

## 재앙 후에 주시는 은혜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예레미야 31장 2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렘29:1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11절).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사55:8). 우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합니다(마9:4).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막7:21-22).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죄입니다(잠24:9).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6:5)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십니다(렘30:11). 징계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시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케 하십니다(26:13).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31:2).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재앙 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7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길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재앙 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이전에 그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원인인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재앙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북쪽 땅 바벨론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아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 곧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 유다 백성들은 울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9절). 돌아오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9절). 옛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그들을 이끌어(3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찼을 때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을 그들에게 성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29:1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31:2).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눅15:11ff.).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재앙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곧은 길로 가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유다 백성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사53:6). 그들은 구부러진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재앙을 만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렘31:8). 그러므로 그들을 울며 돌아오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고치시사 그들로 하여금 곧은길로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9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그의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들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0절).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되 지금 주님은 진정한 예루살렘인 저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곧은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 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재앙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을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사 다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세우시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평안히 시간 여유 있게 농사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박윤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연합시키시사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참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6절, 박윤선).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야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4절).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마16:18) 분명히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재앙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3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3절). 기쁨을 얻게 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춤추며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3절). 춤추며 즐겁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물 댄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곧은길로 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며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케 하십니다(렘31:14). 이러한 은혜가 재앙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 [시편 121편]

여러분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새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즐겨 부르곤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1절). 특히 저는 3절 가사를 좋아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제 자신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이리 저리 쓰러질 때가 많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 때 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 1-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시편 121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생각했습니다. 그 때 그의 결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였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누구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본능은 철저히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그 분이 만드신 “산들”과 같은 큰 세상 세력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의 “산들”에게서 진정한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산들까지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지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첫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 이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한국 청소년들의 탈선 이유가 궁금해서 한 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나눕니다(인터넷).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성도·김지혜 교수팀은 서울시내 중고생 431명(남 224명·여 207명)을 대상으로 비행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남학생은 ‘불안감과 부정적 정서’가, 여학생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비행행동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 교수팀은 “남녀별로 비행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다른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불안감 등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인 비행행동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및 사고가 비행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읽으면서 청소년 남녀의 탈선 원인이 ‘부정적 정서(남)와 부정적 자기 평가(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좇는 제자들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에서 탈선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 하였던 원인인 ‘의인의 고난 그러나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서 탈선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답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므로 받고 누릴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시편 121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 **둘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몇 년 전 제 아들 딜런이 밤마다 악몽 때문에 잠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딜런에게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제 아내를 지난 주일과 월요일 밤에 딜런에게 꿈에서 고릴라를 보았다고 하기에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그 고릴라를 죽이고 딜런이는 죽이지 않는 작은 풍선에 약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들고 자라고 하니까 아마 아이가 주일 밤에는 잠을 잘 잤나 봅니다. 우리 부부가 딜런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악몽을 꾸는 아이 옆에서 계속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떻게 졸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지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더딜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난관에 처한 성도를 도우시는 것은, 그의 정하신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래 참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해로운 것들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5-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우편에서 제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막에서 계속 나에게 쬐인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햇빛이 짹짹 재는 한 여름에 너무나 더워서 큰 나무 밑 그늘 진 곳을 사모하며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 시달려 지쳐 있을 때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여 그에게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낮에 해와 밤에 달 같은 해로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이 세상의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 셋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또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면 환난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시되 여러 종류의 환난을 겪게 허락하셨다가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에서 탈선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 하시지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목상한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에 있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 하나님의 축복, 즉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어려움과 역경, 모든 종류의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에서 탈선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사 그 기도를 응답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새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는 스코틀랜드의 엘리자 해밀턴(Eliza H. Hamilton)이란 분이 작사하고 D. Sankey라는 유명한 목사가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아이라 D. 생키는 자기의 눈 실명 후 구슬로 출판한 “생키의 복음 찬송 이야기”에서 이렇게 회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 해 전, 나는 스코틀랜드의

대도시에서 부흥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때 참석한 어느 소녀가 구원에 관한 간절한 소망을 안고 자기 교회에 돌아가, 구원받는 길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담임목사에게 물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담임목사는 쉽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가엾은 소녀는 울면서 부르짖었다. ‘목사님, 저는 글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목사는 그를 위해 기도한 후 기도를 가르쳐주었다. 그러자 소녀가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 ‘주 예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Lord Jesus, Take me as I am!). 이렇게 하여 그 소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 소녀의 얘기를 들은 어느 여성이 감동하여 이 찬송을 썼다. “후에 어느 영국 목사가 편지로 내게 이런 소식을 전해 왔다. -- 그 소녀는, 불신자로서 자기 집에 하숙하고 있는, 구둣방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교회에 가자고 권했으나 듣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읽어보라고 마루에 놓아두었던 그의 성경을 찢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착한 그 여자는 화도 안 내고 정성 드려 도로 붙여서 제 자리에 두며, 제발 좀 읽어보세요, 하고 권하였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소설이나 신문만 읽을 뿐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그 늙은이는 심한 기관지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 착한 여자는 혈혈단신인 그 늙은 남자를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영혼구원에 대해 얘기해주고, 성경을 읽어주며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착한 여자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빚니다」 찬송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가 후렴을 읽자 그 늙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은 책에 없잖아!” “왜 없어요?” 그 착한 여자는 대답하며 찬송을 들려줬습니다. 남자는 읽어보려 했으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달라 해 그 구절을 읽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라니…!) 그는 찬송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 날 받으옵소서…” 몇 주 후 아침, 그 늙은이가 말하였습니다. “여보, 나 퇴원할래. 난 이제 정말 행복하오. 정말…” 집에 돌아온 지 두 시간이 채 못 되어 그는 세상을 떠났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

## [시편 89편 19-52절]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한 전 야구 선수가 모녀 4명을 살인하고 자기도 자살한 소식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최악성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를 보니 이 전 야구 선수는 자살하기 전 죽인 세 자매의 어머니에게 돈을 빼앗는지 그 돈으로 여기 저기 빛 진 사람들에게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결국 재정 압박으로 인한 살인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전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그 결과 재정 압박으로 인한 이런 저런 최악 된 일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낙망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최악 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찬송가474장).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좌절감과 낙망 그리고 절망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나 영문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2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힘을 더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도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게 행하시되 다윗(“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에게 그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20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사 그와 함께 하시사 그를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힘이 있게 하셨습니다(21절). 그러므로 다윗은 힘을 얻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26절). 다윗은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로 하여금 다윗에게서 강탈치 못하게 하셨으며 악한 자들로 하여금 다윗을 곤고케 못하게 하셨습니다(22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그의 앞에서 박멸하셨습니다(2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드시고(24절) 또한 그의 세력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25절).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제일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언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4:15).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언약함을 체휼하시사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우리 손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복음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복음 성가 가사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힘을 더 하시길 원하십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를 힘이 있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28절을 보십시오: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시편 89편 1-18절 말씀 중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여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지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세우시며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시되 그의 사랑(인자함)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보문 27절에서는 다윗을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지키시며(2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9절). 그러나 만일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30-32절).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팡이로 너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너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오늘 본문 33-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징벌은 하시지만 아주 내어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내어 버리실 수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심으로 한번 맹세 하셨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35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어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곤고와 치욕에서 구출(구원)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38-51절, 박윤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곤고와 치욕이 하나님의 진노(38, 46절)를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 언제까지 스스로 (얼굴을) 숨기실 것인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46절). 주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셔서(42절)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훼방케 하셨습니다(50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47-48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4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은 다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하며 성실한 사랑(인자하심)을 의지 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곤고한 때에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52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함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사랑(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체험)한 심령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 [시편 18편]

왜 우리는 낙망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포자기 할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일을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3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현실”, “생각” 그리고 “감정.” 즉,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과 역경이 몰아칠 때에 부인하고 싶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생각”(mind)입니다.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이나 역경이란 현실이 닥칠 때에 우리 생각에서 4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Why?)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왜 나인가?’ 등등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나 혹은 습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이 왜라는 질문은 결국 당연한 현실을 우리하고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인은 결국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의 피해의식을 표출됩니다. “왜?”라는 질문 외에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How?)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라고 문제 해결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결국 해답을 찾기보다 못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현실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던지려고 노력하는 질문은 “무엇?”(What?)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질문을 수 없이 던지면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접한 현실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누구?”(Who?)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므로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감정을

표출하게 합니다. 감정에 굴곡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적인 생각 속에서 일관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의 현실은 4-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과거에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표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깊은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절).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사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으로써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쏟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속이 다 녹아내릴 만큼 아픈 사랑”(인터넷). 이 사랑은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박은 것이요 그야말로 녹아진 사랑입니다(박윤선). 다윗이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숱한 위기 때마다 그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였기에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구원의 체험 회상 속에서 다윗은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3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신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신 것입니다(박윤선). 그 하나님의 성품상이 오늘 본문 시편 18편 2절에 여러 명칭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들 의미함), “나의 요새”(높은 언덕 혹은 산꼭대기를 의미함), “나를 건지시는 자”(위급에 직면했을 때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석산의 험봉을 가리킴), “나의 방패”(원수의 화살을 막는 것), “나의 구원의 뿔”(승리의 능력을 비유), “나의 산성”(험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시설도니 피란처).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이시기에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극도의 위험한 환난에서 (4-5절: “사망,” “창수,” 음부”) 부르짖을 때에 또한 그 환난에 급히 임함 가운데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8편 7-15절을 보면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7-15절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의 위엄이 들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고(7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왔고(8절),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였고(9절), “그룹을 타고 날으”셨으며(10절),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심으”셨으며(11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뽀뽀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렸으며(12절), “뇌성”과 “번개”를 발하셨으며(13, 14절), 그리할 때에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15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때에 천지를 진동할 듯이 위엄차게 임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박윤선).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 가운데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찾아 오셨던 하나님, “이것은 이상스럽게 생각된다. 하나님의 나타내신 위엄은 저렇게 큰데, 그 구원하시려는 목적물은 극히 무의미한 듯한 한 개인이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진동시키셨는가!”(박윤선) 이렇게 한 개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개인의 기도에 대하여 4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첫째로, 기도는 하늘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16절에서 다윗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사방의 문이 막혀 살 수 없게 된 때에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문이 열렸고 그 문은 하늘 문 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동서남북 간헐을 때 땅을 바라보면서 “왜?”라는 질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모세,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 **둘째로, 기도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보다 강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게 비러 기도입니다(17절). 다윗보다 훨씬 이 강한 원수들, 그러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경험케 합니다.

###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재앙의 날(18절)이 이르렀지만 그가 기도할 때 그 재앙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비겼습니다.

넷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19절을 보십시오: “...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현실을 접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여 기도해결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할 듯이 위엄차게 임하시사 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체험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이 상황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상황인가? 아마도 지금 내가 접한 상황은 내가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일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나는 내 상황이 불만스럽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불만스러운 내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다.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지 망막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 볼수록 낙심이 되고 심지어 절망까지 된다. 소망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나는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게 되었다. 읽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나는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즉, 나는 그가 처하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3절). 그리고 그는 “모든 시위대 안”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당한 일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만일 내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공산국가이던 모슬렘 국가이던 선교한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 생각났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깊은 옥에 갇혀 차꼬에 든든히 채워진 상황에서(24절)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과연 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 감옥에서 건져 달라고 간구는 할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내 힘으로는 찬송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찬송케 하실 줄 나는 믿는다. 그 이유는 나의 첫째 아기가 죽은 후 뿔가루를 뿌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부인(deny)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고(롬12:1)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 가실지를(롬8:28)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묵상할 때 2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는, 바울은 매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힘든 상황에 매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여 있을 수 없음을 믿고 나의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길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자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매임 상태에 놓여있었을 때에 두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셨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5절).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16절). 이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8절). 그러나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5절).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7절). 이들은 겉치레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8절). 그러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다(18절). 결국 이렇게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기에 바울은 기뻐한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길 기원한다. 나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길 기원한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있으므로 우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진보가 있길 기원한다(25절).

##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베드로전서 4장 19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생각합니다: (1) 우리의 죄 때문에, (2)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리고 (3) 우리가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물론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왠지 많은 우리의 고난이 어쩌면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요나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왜 요나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가 타고 가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까?(욘1:4)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2절)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3절).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충분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고난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바로 욥이란 인물입니다. 그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욥1:1, 2:3) 그의 10 자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1:18) 그의 모든 소유물도 잃었습니다(12, 15-17절). 또한 그는 자신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므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였습니다(2:7-8). 그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1:12, 2:6).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손금 같이 나오게 하시사(23:10)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 보옵는(42:5)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에게도(빌1:27)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고후11:21-31).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언젠가 읽었던 책에서 저자 헨리 나우웬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므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선포한 후 이렇게 다시금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의 초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한 5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감뉘음을 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뉘음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벌써 죄와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의 마음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므로 죄 사함과 더불어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남은 인생을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2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3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않습니다(4절). 그들은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을 믿기 전의 과거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3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2절).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12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은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않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그들은 그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약1:2, 현대인의 성경).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자신들이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14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16절).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처럼 자신의 정욕을 따라(2, 3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15절)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관계를 끊은 상태에서(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2절).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16절). 즉,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므로(1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16절).

**넷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18절)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19절).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엡2:10). 그러므로 그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살후3:13) 그 선한 일 행함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갈6:9).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잠깐 고난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빌1:29, 벰전5:12, 현대인의 성경).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난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벰전4:12). 그 연단 중에 하나는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합니다(11절).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잠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5:10).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10절). 그들은 장차

자신들에게 나타날 이 놀라운 영광은 자신들이 받는 현재의 고난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줄을 알고 있기에(롬8:18, 현대인의 성경)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한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벧전5:10). 그러므로 그들은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합니다(11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감웃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잠깐 고난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상반절).

제 마음의 병에 고요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눈물입니다. 아직도 그 흘리는 눈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는 눈물입니다. 제 마음에 제일 깊이 적혀 있는 눈물은 첫째 아기 주영이의 눈물 한 방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앉아보았던 주영이가 제 품안에서 편히 잠들었을 때 그녀의 오른쪽 눈가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55일 동안 수많은 바늘 자국이 있었던 그 아기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마다 그 아기의 눈물 한 방울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곤 합니다. 제 마음에 두 번째로 깊이 적혀 있는 눈물은 사랑하는 제 아내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영이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의 문제와 피 순환이 안돼서 온 몸이 시퍼렇게 되어 위독할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좀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때 만큼 저는 아내가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잊지 못할 아내의 눈물은 주영이의 시신을 화장한 후 뺨가루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박스를 들고 아내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아갔을 때 갑자기 아내가 배 뒤에서 그 배를 조정하고 있었던 저를 쳐다보면서 “Titanic”이라고 말하면서 줄줄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 슬픈 와중에서도 농담(?)하는 아내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 마음의 병에 있는 또 하나의 눈물은 저의 할아버님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주일 아침 제가 기도를 드린 후 눈을 떴을 때 할아버님 오른쪽 눈가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기에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지만 그 흘리셨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저의 할머니님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할머니님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님이 갑자기 우시 길래 저는 할머니님께 ‘할머니, 죽음이 두려워서 우시는거예요?’라고 여쭙보았을 때 할머니님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도 감사하세요 라고 여쭙보았더니 할머니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 명의 주님의



종을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시다 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서 흘리셨던 그 분의 눈물도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는 눈물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오늘 새벽기도회 읽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제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현대인의 성경)라고 간구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전에도 여러 번 이 성경구절을 읽었을 텐데 어제 저녁 전까지는 저는 그 성경구절을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기도회 때 시편 56편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금 8절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이렇게 다시금 묵상하면서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의 관심이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는 눈물보다 주님의 병에 담겨진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니, 제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이 이미 주님의 병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그 눈물을 다 받치길 원합니다. 첫째 아기 주영가 흘렸던 눈물이나 제 아내가 흘렸던 눈물, 또한 저의 할아버님과 할머니가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어찌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다 이해하시기에 저는 제 마음의 병에 있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모두 다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1987년 5월 대학교 때 저희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흘렸던 세 가지의 눈물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길 기원합니다: 회개의 눈물, 헌신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 지금도 또한 앞으로는 저는 이 세 가지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병에 이 눈물로 채우길 원합니다.

#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 [시편 71편1-14절]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은 자신의 감옥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본 어게인(Born Again)’이란 책을 썼는데 그는 죄수들 사이에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째 종류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역시 가망이 없는 죄수들로 자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셋째 종류는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감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설령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밖에 나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들은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둠속에서도 빛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11절을 보면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편 71편 1-1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3 가지로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둘째는, 왜 시편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하였는지 그리고 셋째로, ‘나는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시편 기자의 삶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4절) 또는 “원수들”(10절)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의 영혼을 엿보아 죽이려고 했습니다(10절). 여기서 “흉악한 자”들이란 단어의 히브리 원어 의미는 ‘누룩에 뜬 자’를 의미합니다(박윤선). 흉악한 자란 악인 또는 불의한 자로서 극도로 악하여 악을 멈추거나 회개할 줄 모르고 더욱 더욱 악을 번지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러한 자들이 시편 기자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에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둘째로, 왜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첫째 이유는, 주님은 그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39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주님 안에서의 소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2) 둘째 이유는 주님은 그의 거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무시로(항상) 그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가리켜 “바위”로도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바위”란 견고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 대상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특히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힘이 빠지고 있을 때에 그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 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바위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주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위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붙잡은 약속의 말씀은 바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였습니다(3절). 그러므로 다윗은 구원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거했습니다.

### (3) 셋째 이유는, 주님은 그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기자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나이까지 인도함과 견지심을 받았기에 지금 현재 자기가 당면한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견져주실 줄 확신했습니다. 참으로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 앞으로 더 살아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시편 기자의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그의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은 자기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절망을 주는 원수들로부터 그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피하되 그는 무시로(항상)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했습니다(3절).

#### (2) 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첫째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1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 악인들이요 불의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로부터 피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4절).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나이 들어 늙을 때에 힘이 쇠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로 실패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엿보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하면서 자기들 손에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다고 거짓을 말하였던 그의 원수들에 대해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옥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13절).

### (3) 셋째로,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6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6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14절).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이 악을 더욱 더욱 번지게 할 때에 더욱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항상(3절) 견고한 바위(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했던 시편 기자는 그의 보호하심 아래서 항상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 이다”(8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 어릴 때부터 의지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항상 찬송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항상 소망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항상 찬양하십시오.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결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되신 주님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오뚝이처럼 일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루하루 소망되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힘으로 한걸음 한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과 죄악 된 일들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허덕일 때도 많지만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힘주시고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겪게하시사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염려와 불안 가운데 허덕일 때에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역경을 인내하며 극복케 하시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케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위로와 염려 중에 평화와 불안 가운데 확신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통과 역경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사 풍랑에 거센 파도치는 이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자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서 나 홀로 질수 없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낙심되고 우울할 때, 염려와 걱정 속에서 허덕일 때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